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4·2
VOL.224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예술단 합창단 신규단원 모집공고

부산예술회관 예술단-합창단에서는 부산 시민들에게 음악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하모니로 문화예술 발전에 주역이 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기간

24. 1. 16.(화) ~ 2. 12.(월)

접수기간

24. 2. 13.(화) ~ 2. 16.(금) 15: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artbusan@hanmail.net

우편. 방문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302호

모집원서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bsart.or.kr>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1부

문의 051-631-1377

모집내용

파트	인원	직책	실기 및 면접시험
소프라노	각 파트별 00명 (총 35명이내)	일반 단원	자유곡 1곡
알토			
테너			
베이스			

응시자격

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만 39세 이하인 자

실기 및 면접시험 안내

일시 : 24. 2. 24.(토) 15:00

장소 : 부산예술회관 2층 연습실

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위촉 : 24. 2. 27.(화) 17:00

혜택

우수단원 표창

국,내외 공연 참여 기회 부여(우수단원 우선 참여)

외부 공연 참여 시 소정의 공연수당 지급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이화전통무용예술원 _가무동행, 오후 7시 010-9991-0118	2 이든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오후 7시, 051)646-4540	3 총그리다무용단 제2회 정기공연, 오후 7시 010-7641-4662
4 그루비 댄스튜디오 BODY & GROOVE vol.3, 오후 6시, 051)612-1058	5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6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7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8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9	10
11	12	13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14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아시아공동체학교 _일곱색깔무지개마당 오후 7시, 051)633-1381	15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6 리틀모짜르트 음악학원 _꿈꾸는 아이들의 세상, 오후 7시, 010-9400-0159	17 한양음악학원 제2회 정기연주회 오후 1시~4시(2회) 051)612-1239
18 소울드아웃댄스 1st.콘서트 오후 6시, 051)808-0822	19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20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1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부산건축가회 정기총회 오후 3시, 051)241-4011	22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부산예총 정기총회 오후 5시, 051)631-1377	23	24 부산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 오후 2시, 051)631-4111
25 부산무용협회 정기총회 오전 10시, 051)632-5116	26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27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8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부산차문화진흥원 정기총회 오후 2시, 051)809-1551	29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예술
부산

ART BUSAN MONTHLY
VOL.224
2024 FEBRUARY 2

CONTENTS

권두칼럼

06 예술이 지닌 긍정적인 작용의 힘 _ 이해철

예서제서

- 08 부산예총: 2024년 계획
- 10 제27회 새물결총작가전 _ 함수경
- 14 부산근현대역사관 지하 금고 개관특별전 _ 이지윤
- 18 사상생활사박물관 _ 이효민
- 22 치앙마이 판화 레지던시 결과전 - 종이 위의 아세안
- 24 영화의전당 - 예술영화 보기 _ 정지영
- 26 최경철 가야금독주회, 鉉으로 빛은 주제의 변용 _ 김명수
- 28 한국궁중꽃박물관 - '쵸, 천년의 신비'
- 30 국립해양박물관 - 피싱 : FISH 생존x예술 ING
- 32 부산프랑스문화원 ART SPACE - 챔피언들+꿈기
- 34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 인도현대도자전
- 36 제4회 ARTISTART-아티스타트
- 38 현대모터스튜디오부산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표지_ 신성호

나의 추상작업은 작품이라는 사물로서 지금 있는 그 자체로 스스로 일어나는 일, 오로지 그 자체에만 속하며, 무한의 운동들로 주파되는 현행성을 그 정신적 기반으로 한다. 되어가는 도중의 그 무엇, 타인이 되어가는 생성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려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행위의 축적인 바탕의 거친 드러남, 인위를 거부하면서 인위이자 인위가 아닌 것, 있으면서 없는 어떤 것도 아닌 것으로 있는, 부재하는 것의 존재감을 환기하기도 한다. 그 드러남이 완전함이 아닌 하나의 가능태로서 마치 파편과도 같은 던져짐과 그어짐을 통해 완전할 수 없는 세계와 생명의 양태(樣態)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가상으로 형성된 공간을 통해 생명체 내부의 기운과 활력, 소리, 생명 예의 의지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_2024. 작업노트 中

Gaze 2316_아크릴 안료 탈크, 61*61cm, 2023



포토에세이

40 환생 _ 장부봉

時雨일기

44 겨울, 뉴스권에서 _ 문경희

인물포커스

48 부산미술협회 신임 회장 최장락 _ 이효민

예인탐방

50 작가 박정선 _ 김새록

예술가열전 217

52 조각가 권달술 _ 노옥분

손으로 쓴 문학

56 동동숲 _ 권명해

들여다보기

58 문학/ 김소해 시조집 『서너 백년 기다릴게』 _ 정희경

60 미술/ 조부경 '집 빛 기억' _ 김영준

62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 _ 김지연

64 연극/ 부두연극단의 종말체험 <End Game> _ 김문홍

기획연재

68 예술치료II - 치매와 예술치료 _ 김소형

72 예총-전시-공연 뉴스

78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4년 2월 통권 224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4년 1월 25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이 지닌 긍정적인 작용의 힘

글 _ 이해철 장장아스콘산업(주) 회장

미처 챙기지 못한 주변을 돌아보고 잇고 살던 일도 반성하게 되는 게 연말의 풍경이라면, 새해에는 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희망과 의지를 다잡게 되곤 한다. 특히 갑진년 해가 밝은 1월 1일은 수많은 사람이 그날에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소소하게는 고향 올린 떡국 한 그릇 끓여 먹는 것으로 새해를 맞고,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저 멀리 해안가까지 어둠을 벗 삼아 내달려 장엄한 일출에 감동했을 테다. 묵직한 DSLR을 든 이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이런저런 세팅을 하며 대왕암이나 명선도니 하는 유명한 일출 장소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다.

각자의 방법으로 시작한 2024년이 어느새 2월에 접어든다. 이쯤에서 첫발이나마 잘 내딛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텐데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이 될 것처럼 마음먹은 1월 1일이 지나니 의지가 한풀 꺾인 이들이 많을 것 같다. 하긴 작년은 부산의 직할시 승격 60주년이었으나 나름 조용히 지나간 것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의 연도나 시작 또는 끝 날짜 등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긴 하다. 그럼에도 2월 1일, 3월 1일, 또는 다양한 날짜들에 의미를 부여하길 권한다. 삶이란 결국 의미 부여 작업의 연속이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상황을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리셋증후군'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만, 건강한 '재시작'은 매년 초심을 찾게끔 한다. 물망초심勿忘初心 초심불망初心不忘이니 새해에 다짐한 것들을 새삼 노트에 끼적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우리가 사는 부산도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부산하다. 급상승한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기치로 삼았고 대표적인 관광 명물인 광안대교가 새로운 경관조명과 미디어콘텐츠로 재단장해 점등식을 하기도 했다. 특별한 '포용예술' 공간이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금정구 두구동에 개소한 '창작공간 두구'인데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힘을 모아 작품을 만드는 곳이다. 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4명 총 8명의 입주작가가 전국 최초로 포용예술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술문화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술은 특별하되 단지 그 특별함은 사람들의 생활과 일반적인 일들 속에서 길어내어지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환경, 인권, 동물보호, 차별, 역사 등 수만 가지 현안들이 예술가의 표현 대상이 되는 것이고, '포용'의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이러한 공간도 만들어지는 것일 테다.

앞서 예술문화 분야를 잘 모른다고 했지만 어쩌면 예술은 '알려고' 하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설픈 지식과 편파적인 지식은 요즘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원인이 될 뿐이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지식과 무관하게 예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다. 작년에 부산의 중심지 영광도서 앞 분수대에서 50~60대 중년 음악가들이 버스킹을 했다. 색소폰 연주와 성악, 장구와 가야금 연주로 모은 돈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6·25전쟁 참전 UN군 후손들에게 지원할 장학금에 포함된다. 이는 '한국전 참전UN군후손장학회'(공동이사장 이학춘·도용복)가 마련한 거리 음악회였고, 나 역시 UN평화기념관 명예홍보대사 중 한 사람으로서 장학회 사업에 한 손을 보태고 있다.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남을 돕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버스킹을 통해 거리에 음악이 울려 퍼진 순간만큼은 갈등보다 화합의 힘이 강해졌기에 장학금 마련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하고 작은 예시이지만 이처럼 예술이 사람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만기에 예술을 좋아한다고 선뜻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발표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개개인이 직면한 모든 이슈에 견리망의하지 않아야 할 것을 소망하여 채택한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다. 작은 이익이나 즐거움에 도취해 새해에 다짐한 것을 잊는다면 그 또한 견리망의한 것일 거다. 누구도 성취감보다 반성할 것이 많은 12월을 원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건 '의로움'을 지킬 때 가능한 사회라고, 아직은 그러하다고 믿고 싶다. 홀로 의롭기가 쉽지 않을 때, 그런 때야말로 예술이 지닌 긍정적인 작용의 힘을 빌려보자. 긍정적 사고와 행동은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지적 창조력은 초예술적 미래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건강한 재시작으로 초심을 다지며 행함에 있어서는 의로움을 지켜 갑진년, 비상하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부산예총: 2024년 계획

60주년이었던 2023년,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는 다양한 기획 및 행사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올해도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꽃작가 차문화, 12개 단위협회와 함께 청룡처럼 비상할 부산예총의 2024년 계획을 소개한다.

/편집실

문화가 있는 날-예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공연 및 전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통한 감동을 만든다. 성악·클래식·국악·무용 같은 공연 무대와 미술 전시 등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제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12개 단위협회의 특성에 맞는 행사는 학업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진로 모색에도 도움을 준다. 본인도 몰랐던 예술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알게 한다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올해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갈매랑축제

부산광역시와 부산예총이 주최하고 부산예총의 12개 단위 협회를 비롯한 유수의 단체가 주관하는, 종합적인 융합예술 축제다. 지난해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들과 호흡한 데 이어 올해 6월도 시민 참여형 축제를 만든다.

제13회 젊음의 축제

대학생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년문화 활성화의 현장이다. 청년 음악가들의 자유분방한 무대, '댄스 열풍'을 증명하는 스트릿댄스 무대 등을 펼쳤던 젊음의 축제는 13회째를 맞아 청년문화에 한 발 더 다가선다.

제62회 부산예술제

부산예총 12개 단위협회가 지닌 각각의 특징과 장르별 예술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종합예술제로 10월 개최된다. '2024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도 부산예술제 기간에 함께 열린다.

예술이지

예술아카데미를 수강한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연말 발표회로 '예술과 생활을 잇는다'는 뜻이다. 2022, 2023년 두 번의 개최를 통해 '나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 줬다.

부산예술회관예술단 -합창단

합창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건강과 행복, 사회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예술회관예술단-합창단은 부산시민으로 합창단을 구성해 순수 예술의 매개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고자 한다.

예술아카데미

부산예총은 2011년 예술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노래교실·한국무용·아랑고고장구·댄스스포츠·라인댄스·수채화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이 부산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화예술 서포터즈 예담

'예담'(예술을 담다)은 올해 상, 하반기 부산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위한 홍보 및 대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서포터즈다. 작년에 이어 모집한 2기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한다.

※ 행사 내용(일정, 장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서는제서

제27회 새물결 춤작가전

2023. 12. 29.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인도_고도리

2023년 12월 29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27회 새물결 춤작가전'이 열렸다. 2023년 무용과 공연예술계를 돌아볼 때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공연예술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에 새물결춤작가전은 비록 출연팀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본다.

부산시는 2030 엑스포에 도전한 후보로서 도시의 경제적인 성과를 문화적 진동 에너지로 물들레처럼 펼치는 것 같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거나 문화기반 시설의 주도로 무용계나 공연예술 장르의 예술 생태계가 창작-제작-유통으로 연결될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올해의 포커스 온'¹⁾ 같은 다년도 집중 창작 지원 사업이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재개했으며 부산공연콘텐츠 페스타²⁾가 무용 작품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부산퍼포밍아트마켓³⁾이 공연예술작품 시장에 첫걸음을 시작했다. '부산 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수립연구'⁴⁾에 따르면 그간의 예술 지원 사업은 창작 단계에 집중해 작품의 유통, 확산, 예술가 및 단체의 지속 성장 등에 대한 지원은 균형 있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특히 공연예술 장르 특성상 한 번의 공연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재공연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이 고도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⁵⁾ 부산국제춤마켓(BIDM)이나 부산국제무용제(BIDF)의 안무가 육성 경연 AK(Art Korea)²¹이 있고 제주 해비치아트마켓, 서울아트마켓(PAMS: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같은 공연예술마켓이 있지만 이제 부산에서도 또 다른 페스티벌 형태의 유통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진행된 새물결춤작가전은 최우수상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야 했지만 이제 다양해진 유통시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새물결춤작가전의 최우수 작품이 부산무용제에 올라가는 것 이외에도 젊은 작가들은 완성된 작품을 관객의 반응과 함께 다시 다각적으로 실험하고 접근하며 재작업 과정을 거치는 진행형 작품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부산시장상)은 <고도리>를 안무한 [무인도.Muindo]팀의 이원재가 받았다. 안무자인 이원재는 2022년 이태상 프로젝트-(주)몽뽕 안무로 우수상을 받았고 2023년에 최우수상(부산시장상)과 우수무용인상(부산무용협회장상) 남자상 김동현, 여자상에 김수민으로 무인도팀에서 모두 수상했다. 이원재가 안무한 <고도리>는 손영일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처럼 올해 심사기준인 된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작품"에 가장 부합했으며 희곡기반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제목을 재미있게 비틀어 안무의도를 확인하게 했다. 고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추상적 시간과 맞이하는 길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변화를 속도감 있게 무대 소품과 함께 입체적인 흐름으로 작품의 이해를 도왔다.

우수작품상(부산예총 회장상)은 <2=4>로 [휴 댄스 프로젝트.Hu Dance Project]팀의 안무자 임지우가 수상했다. 안무자 임지우는 지난해 26회 새물결춤작가전에 무용수로 출연했으며 당시 움직임의 가동범위⁶⁾가 넓어 매력 있는 무용수로 인상 깊

1) <https://www.bsca.or.kr/portal/bidInfo/view.do?mId=0301000000&idx=931>부산문화재단 공모안내

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2022년 공연예술 전장르 대상 공모에서 2023년에는 무용장르로 한정해 지역 예술단체인 김육련빌레단'분홍신 그날자', 허경미무용단-무무'길을 잃다', 댄스프로젝트 에 게로'스구르지가 부산문화회관 주최 주관으로 공연.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0110511253711> '지역무용'키워드로 치르는 2030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부산일보 2023.11. 1.

3) 페스티벌형 공연예술마켓으로 연극, 무용, 음악, 다원 그리고 거리예술까지 포함하여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 전 장르를 아우르며, 국내외 93개의 공연이 참여.<https://www.bpam.kr/> 홈페이지

4) 책임연구 원항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5)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2616433682399> 오는 10월 부산에서도 '공연예술마켓'열린다. 부산일보 2023.1.26.

6) Range of Motion: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다. 27회에는 안무와 함께 엄지원, 김민서, 이유정, 이하영, 엄홍주와 출연했다. idiot otherwise .. 의 첫 부분의 그룹을 시작으로 듀엣, 트리오, 듀엣, 솔로 그리고 다시 그룹, 듀엣... 스토리 라인에서 짧은 시간 조합과 등·퇴장으로 작품의 밀도 있는 완성도는 부족했지만 느슨함 속에 춤으로 보이는 각 무용수들의 집중력은 높았다.

[프로젝트 흥Project_興]의 <만흥>은 출연한 작품 중에 유일하게 안무자가 출연하지 않은 작품이다. 춤추는 그룹 밖에서 한 발 떨어져 작품을 바라볼 때 나무보다는 숲 전체를 보며 관객에게 안무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허지혜가 안무한 <만흥>은 김나영, 김나연, 이주원 무용수 3인이 두드림의 간격에서 오는 짧은 여백이나 하늘을 보며 음악 리듬에 따라 두 팔을 흔들며 등장하는 부분, 가야금과 구음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거나 테크노 음악에서 역설적으로 느린 동작을 보이며 상체 위주의 움직임을 보였다. 다음 기회

에 주제에 대한 안무자의 흥에 대한 몸의 어휘나 구성, 특이 점을 더 찾아내고 더불어 관객과 즐기고자 하는 의도가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물음표무용단Question Mark Team]의 <마력馬力>은 전성민 안무자가 시작에 무대 마이크를 가지고 등장해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으나 언어 대신 몸짓으로 안무의도를 설명했다. 그 후 등장한 권혁성, 김세연, 이예원이 각자가 맡은 말의 의미를 조합하거나 퍼즐 잇듯이 연결, 다시 섞으며 재치 있는 동작이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구조로 풀었다. 같은 동작이나 내용을 두 번 반복하거나 강조와 나열 그리고 재배치하는 모습에서 차근차근 관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은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구조처럼 간결하면서 즐겁고 재치 있었다.

새물결춤작가전은 경연으로 진행되지만, 창작과 제작을 지원하는 모습에서 경연대회라기보다는 인큐베이팅하는 것



프로젝트 흥_만흥

에 가까워 보인다. 그 과정에서 출연한 모든 작품이 미처 수상을 못 할 지라도 창작-제작에 이어 유통과정까지 갈 수 있는 자양분을 받는다. 27회 새물결춤작가전 작품 모두 앞으로 무대에서, 거리예술로 또는 해외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제2회 부산 퍼포밍아트마켓은 다양한 예술공연과 함께 세미나, 파빌리온, 매칭프로그램, 부스 운영,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까지 열리므로 경연으로 이루어진 새물결춤작가전의 결과는 아쉬울 수 있지만 신진 단체로 유통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



물음표무용단_마력馬力

것은 분명하다. 27년의 역사를 가진 새물결춤작가전은 신진 춤작가에게 창작기반과 제작토양을 제공해 공연예술 유통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글_함수경 인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 사진_박창현

부산근현대역사관 지하 금고 개관특별전

가장 가깝고 가_____장 은밀한 역사

2023. 12. 22. ~ 2024. 2. 26.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



1 나미아_잇을 수 없는, 공간 외 복합매체, Mixed Media, 가변크기, 2022-23
2 조정현_제로 아일랜드, 박제된 왜가리, 화폐 오브제, LED T5, 240×240×190cm, 2020

1963년에 건립된 구)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재단장을 거쳐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으로 개관했다. 화폐 등을 보관했던 지하 금고는 ‘금고미술관’으로 변신해 첫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부산에 대한 예술 언어를 제시했다.

거대 서사만이 ‘역사’로 인정되었던 시대는 과거가 되었다. 동시대에는 미사 서사도 존중되고 기록된다. ‘절대적 진리’ 또는 거대한 틀이 아닌 주변부의 탈중심적 목소리들, 가장 최근의 일부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의 내밀한 목소리까지도 역사로 존중된다.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는 작가 14명의 작업을 통해 가장 최근의 사건이자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전시 공간에 풀어냄으로써 부산의 역사를 반추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일반 시민에게는 비밀의 장소였던 지하 금고의 내부 전경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4개의 금고로 이루어진 금고실에 세 파트로 구성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일자형 복도에서 각 금고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고 중앙복도 외에도 감시복도를 만들어 보안에 신경을 쓴 점이 눈에 띄었다. 2013년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이전함에 따라 부산시가 건물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한다. 지하 금고의 내부 구조 및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고 공간의 특수성이 잘 나타난 시설물과 창호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공사를 진행했다. 건물의 역사성과 건축적 특징도 눈여겨 살펴보며 작품을 감상하면 이 전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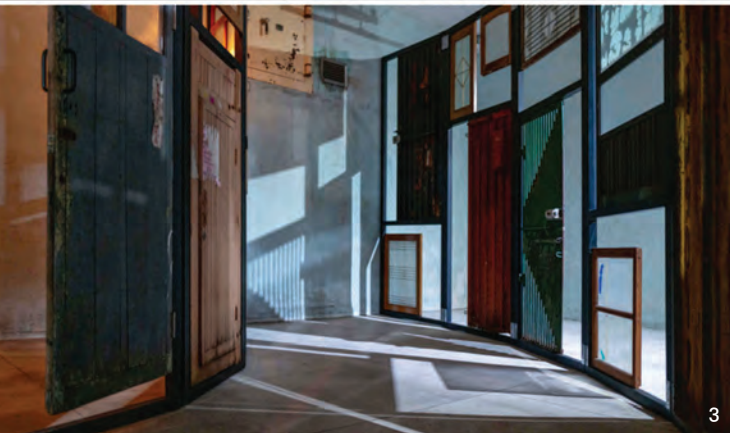
1호 금고는 지폐를 보관했고 2호 금고는 동전(주화)을 보관했으며 3호 금고는 사용할 수 없는 지폐를 보관했다고 한다. 4호 금고는 서고로 활용되었으며 지하 금고 중 원형의 모습을 가장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며 당시에 쓰였던 벽의 형태를 유지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

데, '방호 장비이오니 경비 담당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반출 바랍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까지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Part1 : 존재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곁에 함께 있었지만 잘 드러나거나 인식할 수 없었던 부산의 자연환경을 살펴봤다. 그럼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조명하고자 했다.

2호 금고의 공간은 박한샘 작가의 작품으로 가득 채웠다. 홍티예술촌에 2년 동안 입주하면서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기수역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표현한 그의 작품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낙동강 하구의 모습이 은은한 연출로 표현되었다. 금고 안의 금고(금울 보관)가 있던 공간에서는 조정현 작가의 「제로 아일랜드」를 볼 수 있다. 도시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우리는 자연을 아름답게 포장함으로써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실제의 자연은 축소되고 생태계는 위협당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작가는 그러한 점을 포착하여 작품을 구상했다. 감시 복도의 끝에서 새어 나오는 빛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나미아 작가의 「잊을 수 없는(Unable To Forget)」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어주는 건축적 기능을 지닌 복도를 다중적 시제가 공존하며 머물러 있는 공간으로 변환시킨다. 일출과 일몰로 물든 부산의 자연 풍광이 새롭게 보수되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공간 속에 재현된다. '잊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방문자들을 어두웠던 역사에 조명을 밝혀 지나간 시간과 기억을 마주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한다.





3 김수, 정작까_아무도 살지 않는다,
수집된 문, 센서, 모터,
10m 공간 내 가변설치, 2023

4 최원규, 망각의 각인,
생활공간에서 수집한 장판, 알루미늄
패널, 와이어, 실, 가변설치, 2021-23

5 손형호_낙방연,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2022

4

‘Part2 : 사라지고 있는 내밀한 원도심의 이야기’에서는 급격한 개발 아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쓸모없이 버려지는 사물을 오브제로 바라보았다. 창작의 소재 또는 모티브가 되어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버려진 사물들은 원도심 문화에 담긴 가치와 가능성의 흔적을 밀도 있게 들여다보게 한다.

4호 금고에는 김수, 정작까의 작품이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집의 첫인상일 수도, 집을 외부로부터 지켜줄 수도 있는 ‘문’이 이제는 세월의 흔적을 견디지 못하고 버려질 위기에 처해있다. 담아내고 떨어져 버린 대상의 궤적을 살펴보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어떤 이에게는 추억을, 어떤 이에게는 새로움을 안겨 준다. 3호 금고에는 최원규 작가의 「망각의 각인」이 놓여 있다. 2021년부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독거 중인 중장년층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그들이 먹고 자던 생활공간에서 수집한 바닥재에 각각의 역사를 각인함으로써, 망각되는 주변의 삶에 관해 이야기했다.

가장 큰 금고, 1호 금고의 입구를 지키는 작품은 이민걸 작가의 「Sprout series」이다. 작품의 주요 소재는 부산근현대역사관 공사가 진행하면서 버려진 건축 자재들이다. 소멸해 가는 지하 금고의 다양한 조각들을 통해서 존재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작가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버려진 폐기물을 수집하고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력과 시간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혜진 작가는 남포동 광통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구

제 옷(베의류)으로 자수를 입히고 아크릴 물감을 칠한 「F.F.F.F# 일월오봉도」 등으로 재창조의 시각을 던졌다.

‘Part3 : 숨겨져 있지만 가뻐지 않은 사적 이야기’에서는 작가들이 부산에 살면서 체험했던 개인의 생애사와 가족과 여인 삶의 이야기를 고찰하며 청년 예술가의 삶을 다각도로 해석했다.

1호 금고 안에는 부산이 가진 독특한 역사, 그 이야기를 작가가 겪고 느낀 부산과 엮어 다채로운 인물의 얼굴로 표현한 손형호 작가의 작품이 있다. 사진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하이퍼리얼리즘인 작품 속 두 인물의 모습이 어떤 관계로 엮여 있을지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었다. 정시내 작가는 낡고 사라져가는 길과 주택들을 작품에 담았다. 불편했던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지내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늘 함께하고 싶고 마음의 위안이었던 반려견과 함께 어두운 판잣집 유리창을 물로 채우고 바다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모습을 그렸다. 특히 파편화된 도자기에 살포시 그려 넣은 부산의 풍경은 잔잔함과 따뜻함이 공존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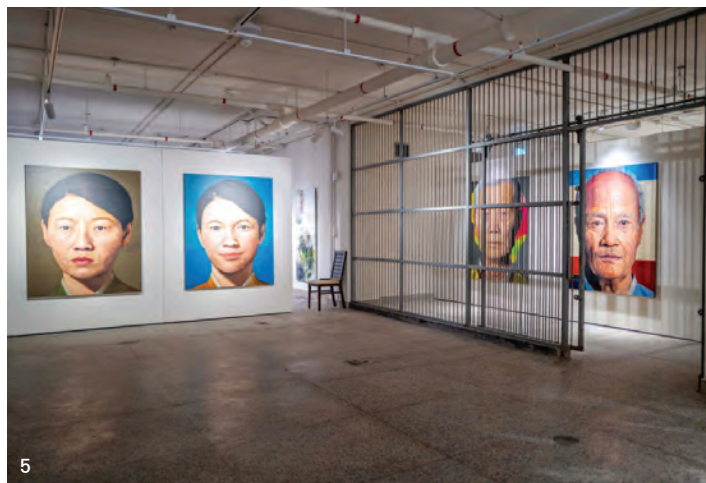
화폐 형태 등으로 이 공간이 과거에는 금고였다는 사실을 환기해 주는 정안용 작가의 작품은, 공간의 기능은 바뀌어도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과거와 현재의 시간, 혹은 완벽하게 사라지기 전 잠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채용 작가는 옷의 끝과 끝을 연결해 주는 ‘단추’를 보고 ‘연결’과 ‘맺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추로 사람을 형상화하고 보이지 않는 끈,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표현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 매달려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을까. 조정환 작가의 「We Came From...」은 고도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대 도시의 삶에서 비롯된 실존적인 불안을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전시의 말미를 장식하는 문지영 작가는 장

애가 있는 동생 혜경과 함께 살아오며 직면한 차별, 낙인, 돌봄의 문제들을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회화 작품만 선보였다. 사회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에 주목하며 보통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역사관에서 예술 전시는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예술은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기반으로 꽃 필 수 있다. 예술가는 기억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의미를 재현한다. 예술가는 기억과 회상을 통해 이루어질 문화의 모습을 그리기에 그들이 표현하는 오브제는 망상, 공상, 허상이 아니라 ‘사실’과 ‘과거’를 담보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예술은 동시대를 읽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면에서, 예술가들의 조형 언어로 표현된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나칠 뻔한 중요한 역사이자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 남모를 원동력 중 하나를 알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처 챙겨 보지 못했던 역사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과 일상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경험을 안겨줄 이 전시를 많은 이들이 관람할 수 있기를.

문의_051)607-8044 / 글_이지윤 문화예술커뮤니티 링드미 대표
사진_금고미술관 제공



사람의 역사가 지역의 역사가 되는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생활사박물관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 재래시장, 삼락생태공원이 혼재하는 장소인 삼락동에 위치한다. 지역의 삶이 녹아있는 장소에 사상의 역사와 사람을 담기 위해서다. 3층 건물은 형태가 꽤 독특하다. 우측 건물은 붉은 벽돌과 지붕 디자인이 과거 공업지역을 떠올리게 하고 좌측 건물은 모던한 통유리로 미래를 상징한다. 빛과 시간(계절)의 흐름을 담는 중정(中庭) 형태를 만드는 다리가 두 건물을 이어줌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잇는 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1층 외부는 주차 공간, 내부는 해설사가 상주하는 작은 로비 공간이다. 2층에 올라가면 외부가 보이는 트인 장소에 윗놀이, 고무신 던지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문화마당 터'가 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의실이나 사무실 등도 2층에 있다. 전시실은 3층 한 곳뿐이지만 상설 전시와 기획전시가 알차게 열리고 있어 아래 층보다 훨씬 넓은 공간으로 느껴진다.

사상생활사박물관은 대단히 귀중한 유물을 다루거나 규모가 큰 곳은 아니지만,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운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곳이다. 무려 삼국시대부터 시작하는 사상구의 연혁, 오늘날 사상(沙上)이라는 지명의 유래, 각 동을 구분·설명하는 자료 등은 보통의 박물관과 비슷한 모습으로, 책으로 치면 개관이다. 본론은 지역주민공동체로 구성된 전시해설사와, 구술 인터

뷰 주인공인 사상 토박이들에게서 읽을 수 있다.

먼저 전시해설사, 이들은 박물관과 단순 고용 관계가 아니라 설립부터 운영까지 한 몸과 같은 지역주민공동체 [쟁강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수년간 구축한 신뢰와 경험,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설명은 전문 해설사 못지않다. 어린이집에서 온 '꼬마' 관람객들도, 자녀의 부축을 받으며 온 '어르신' 관람객들도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통해 즐거운 관람 경험을 얻어간다. '낙동강 우리가 지켜줄게'와 같은 생태전시는 실물과 동떨어진 전시가 되기 쉬운데, 전시 팸플릿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각종 수생·습생식물을 인지하고 기억하게 돕는 실력이 놀라웠다.

구술 인터뷰를 영상과 음성으로 보고 듣는 특별전은 '사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와 '사상의 시간·공간·사람' 두 가지가 진행 중이다. 전자는 토박이들의 구술을 통해 동네



사상의 시간·공간·사람 QR코드



의 지형, 지명 등 사상의 자연·문화경관과 생업의 현장이 그림 그리듯 떠오르게 한다. 후자는 사상구 향토기업에서 실제로 일했던 12명의 구술 영상이다. 사상공업지역에서도 ‘국제상사’는 1970~1980년대를 대표하는 공장으로서 ‘수출의 선봉’ ‘세계 최대의 단일공장’ ‘한국 신발산업의 메카’ 등으로 일컬어졌는데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다.

요즘은 현대미술에서 인터뷰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 종종 사용되곤 하는데, 질적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아주 적절히 사용된 구술 영상을 보면서 어떤 현대미술의 형태보다도 인간의 자취가 온전히 담긴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생일·고향·형제 관계부터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무슨 일을 했는지, 식사는 어떻게 했고 월급은 얼마를 받아서 무엇을 했는지 등을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질문받은 1936~57년생 남·여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수출추진목표 1억불 달성’ 등 각종 표어와 옛 신문에 남은 기록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은 그것을 체득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생존할 때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시도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요즘, 다른 지역에서도 본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활사’ 박물관이라는 명칭답게 과거를 재현한 공간도 재
 있다. 분필이 놓인 칠판, 오르간이 있는 교실 옆엔 옛날 교복
 과 교련복이 전시되어 있다. 졸업식, 학급회의, 운동회, 수업
 풍경 등 이제는 추억이 된 시절도 액자에 고이 걸려있다. 석
 유풍로와 연탄, 양동이와 빨래판이 놓인 부엌 곁에 성인 한
 몸 겨우 누일 방에 나무책상과 스탠드가 알차게 놓여 있는
 낱날이집(나래비집)은 신기하기만 하다. 흑백 텔레비전과 재봉
 틀, 자재장, 자명종 시계가 있고 부엌에는 세탁기가 있는 ‘부
 잣집’ 풍경은 또 색다르다. 온갖 포스터가 붙은 거리 풍경과
 음악다방도 재현했다. 재현된 공간에 있는 물건과 따로 전
 시된 유선전화기, 문패, 잡지 등의 전시물 대부분이 지역주
 민들의 기증품이라 더 의미 깊다.

“재첩국 사이소”를 외치며 부산 전역을 누빈 ‘재첩국 아지
 매’의 흔적인 양동이, 알개미(재첩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도구) 등
 과 낙동강변의 갈대로 만든 빗자루처럼 사상의 농업, 갈대
 엮, 어업을 보여주는 전시도 있다. 삼화 ‘타이거’ <건담> 운
 동화, 대양고무 ‘슈퍼카미트’ <지구용사 선가드> 운동화, 국
 제상사 ‘아티스’ <녹색전차 해모수> 운동화 등이 실물 전시
 되어 부산 산업의 근간이 된 신발산업 관련 전시에 생동감
 을 부여한다.

2016년 5월 6일 개관한 사상생활사박물관은 도시재생 사
 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지역주민과의 공존, 지역의 가치

발견을 넘어 새로운 박물관의 역사를 쓰고 있다. 관계 기관
 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상의 숨
 은 보물찾기 ▶문화다양성(인도) ▶나는 학예사(자유학기제) ▶날
 줄과 씨줄로 엮는 모시짜기 ▶타피스트리 티코스터 만들기,
 소정의 재료비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인프로그램으로 ▶
 도자기를 빚다 ▶천연비누 디자인 클래스 ▶자연과 하나되
 는 시간 원예 ▶DIY 스테인드글라스 ▶은공예 등이 있고
 아동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월대보름,
 복조리(2월 28일) ▶춘분, 화전 만들기(3월 27일)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펼쳐진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
 라 신청하면 된다.

지식만이 아닌 ‘지혜’를 전달하는 것, 사상생활사박물관이
 지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한 역사가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
 에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문의_051)310-5137 / 글_사진_이효민

이용시간 평일/주말 9:00~18:00 (입장시간 ~17: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관)



치앙마이 판화 레지던시 결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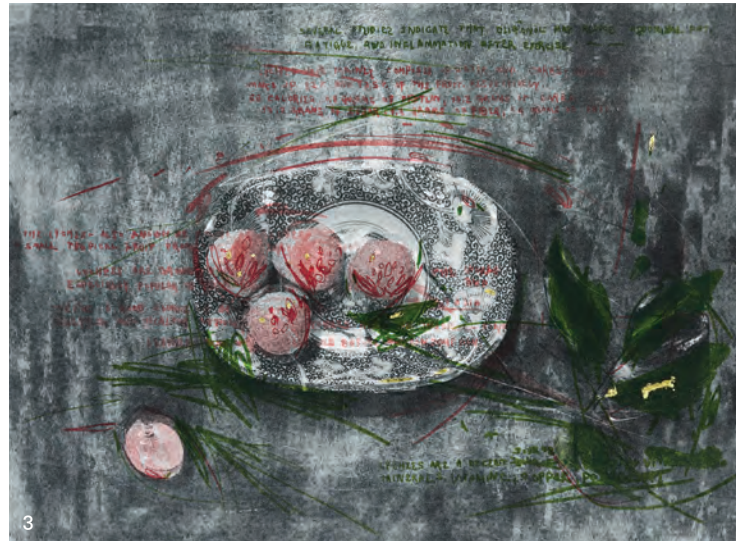
종이 위의 아세안 ASEAN ON PAPER

~2024. 2. 18. KF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실

‘종이 위의 아세안: KONNECT ASEAN 치앙마이 판화 레지던시 결과전’(이하, 종이 위의 아세안)은 종이를 주요 매체로 다양한 판화 기법을 실험한 14명의 한국과 아세안 작가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다. 아세안 회원국의 과거와 현재를 화폭에 담았으며, 한국과 아세안 작가들이 서로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2



3

- 1 김서울_My fresh and brilliant greeny, 종이에 실크스크린, 100×70cm
- 2 마리아 테레즈 티쉬 하우테아_Deposition From The Flesh, 종이에 목판, 100×70cm
- 3 이상미_Five Reddish Nourishment, 종이에 석판금박, 60×44cm

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재단(ASEAN Foundaion, 자카르타 소재)과 함께 한-아세안 예술교류사업 'KONNECT ASEAN'을 진행했고 이번 전시는 그 일환이다. 'KONNECT ASEAN'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후원한 한-아세안 예술 교류사업으로 국내의 아세안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고취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이번 전시는 2021년 'KONNCET ASEAN 현대판화전: 떠오르다' 전시를 시작으로, 2022년 '먼 곳의 친구에게: 아프로-동남아시아 연대를 넘어'의 후속이자 커넥트 아세안의 마지막 협력 프로젝트이다.

국내 4명, 동남아시아 10명 등 작가들은 태국 치앙마이 소재 7개 판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한 달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교환했다. 전시에

는 젊은 예술가들이 목판·석판·스크린 프린팅 등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한 1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장 한 편에는 종이와 판화를 주제로 부산영상위원회의 아세안 영화감독 단편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창작된 9편의 단편영화와 태국 치앙마이 판화 레지던시의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도 상영된다.

주요 매체인 '종이'와 목판·석판·스크린프린팅 등 기법인 '판화'를 통해 상이한 전통과 문화가 교류하며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의 장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전시는 2월 18일까지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_051)775-2000 / 편집실



영화의전당 - 예술영화 보기

삶의 가치를 묻는 〈리빙; 어떤 인생〉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던 런던시청 공무원 윌리엄스(벨 나 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며 지나온 삶을 복기한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지 못한다. ‘단 하루 만이라도 인생을 누려보고 싶어’ 일탈을 단행한 윌리엄스는 외딴섬에서 처음 만난 극작가 서덜랜드(톰 버크)와 유희를 즐기며 중절모를 새로 사서 쓴다. 전 시청 직원이었던 마거릿(에이미 루우드)과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영화를 보다 추문에 휩쓸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던 윌리엄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쌓여 있던 서류 더미에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일을 찾게 된다. 여러 부서를 떠돌며 윌리엄스에게 이르러서도 ‘해될 건 없으니’ 서류 더미에 묻혀 있던 방치된 폐가를 놀이터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었다. 요식적으로 민원을 처리했던 윌리엄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하수가 차오르고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폐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폐가가 놀이터로 변하는 과정은 바로 윌리엄스의 모습이다.

1950년대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4:3 화면 비율에 당시의 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미장센과 동화 같은 장

면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아일랜드 민요 〈The Rowan Tree〉는 영화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골치 아픈 민원은 최대한 다른 부서로 떠넘기는 전형적인 관료였던 윌리엄스에게 마거릿이 붙여준 별명은 Mr. 좀비. 일탈의 현장에서 만취한 윌리엄스가 부른 〈The Rowan Tree〉는 잎이 무성한 봄과 꽃이 만발한 여름으로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의 모습을 노래한다. 나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데 그렇지 못하면 죽은 나무, 즉 좀비가 되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위해 매일 애쓰는 건지 확신할 수 없는 날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작은 놀이터가 완성된 순간에 느꼈던 소박한 보람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윌리엄스가 신입 직원인 웨이클링에게 남긴 편지다. 포스터 한 장에 마음을 빼앗겨 봤던 영화의전당 예술영화 〈리빙; 어떤 인생〉. 눈물샘을 자극하는 큰 감동이나 스펙터클한 반전, 화려한 액션신도 없이 영화는 잔잔하게 흘렀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을 당연하다는 듯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가치롭고 품격있는 삶이 무엇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던지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듯하다.



2월 예술영화 상영작

1 리빙: 어떤 인생 2 추락의 해부 3 플랜 75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 영화의전당은 영화에서만큼은 꽤 유익한 공간이다. 멀티플렉스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도 거의 반값으로 볼 수 있으며 <리빙: 어떤 인생>처럼 작품완성도가 우수한 예술영화와도 조우할 수 있다.

비욘드 유토피아 _감독 매들린 개빈, 미국 115분

<비욘드 유토피아>는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과 이들의 탈출을 위한 감성은 목사의 용감한 헌신을 생생하게 담아내 안타까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탈북 인권 다큐멘터리다.

추락의 해부 _감독 쥐스틴 트리에, 프랑스, 152분

남편의 추락사로 한순간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유명 작가 ‘산드라’, 유일한 목격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과 안 내걸뿐이다.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우발적 자살 혹은 의도된 살인이었을까. 한 남성의 사망사건을 통해 가까운 이들의 내면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도그맨 _감독 릭 베송, 프랑스-미국, 115분

뉴저지의 한 도심, 핑크 드레스에 짙은 화장을 한 남자가

수백 마리의 개와 함께 긴급 체포된다.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던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1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불행이 있는 곳마다, 신은 개를 보낸다’는 카피의 의미가 궁금해지는 영화다.

플랜 75 _감독 하야카와 치에, 일본, 113분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플랜 75’ 정책을 발표한다. 명예퇴직 후 ‘플랜 75’ 신청을 고민하는 78세 미치 가족의 신청서를 받은 시청 담당 직원 히로무와 콜센터 직원 요코, 유품을 처리하는 이주노동자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인위적 행위에 대해 질문한다.

메이 디셈버 _감독 토드 헤인즈, 미국, 113분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곧 출연할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그레이스와 조 가족의 집을 방문해 연기에 대한 영감을 받으려 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23살 차이 부부의 결혼 후 모습과 그레이스의 역할을 맡게 된 엘리자베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의_051)780-6118 / 정지영



최경철 가야금독주회, 鉉으로 빛은 주제의 변용

2023. 12. 27.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발걸음 사이, 최경철의 가야금독주회와 마주했다. 2021년 이후 2년 만에 개최한 일곱 번째 독주회다. 최경철은 이번 연주회 5일 전인 12월 22일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여섯 번째 가야금독주회를 열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독주회를 5일 간격으로 열었다는 것만으로 작곡사이자 가야금연주자로서 최경철의 대단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주제에 의한 변주’라는 콘셉트로 개최한 제6회 가야금독주회가 전통 악곡을 주제로 변주하며 전통의 확장을 꾀했다면, ‘鉉으로 빛은, 주제의 변용’이 콘셉트인 제7회 독주회는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성 더하기였다. 연주곡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휘모리 주제에 의한 변용」 「카프리치오 세산조시」 「18현가야금을 위한 옛 가락의 변용」 「25현가야금

을 위한 휘모리 주제 변주곡 1번」 「독주가야금과 양상블을 위한 장미화원」 「독주가야금과 양상블을 위한 금어」 「독주가야금과 양상블을 위한 두 갈래 길」 「독주가야금과 양상블을 위한 첫눈」이다.

1부는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변주곡 독주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휘모리 주제에 의한 변용」 「카프리치오 세산조시」 「18현가야금을 위한 옛 가락의 변용」 「25현가야금을 위한 휘모리 주제 변주곡 1번」을 연주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곡은 1950년대 강태홍 선생이 직접 창안한 것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주제로 했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막는 주법을 많이 쓰고 장단과 틀을 어긋나게 엮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단은 줄을 고르는 또는 음정을 고르는 다스름에서 시작하여 진

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중모리로 끝이 난다.

강태홍류가야금산조 장단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급하게 휘몰아 연주하며 연팅기 수법이 주를 이루는 첫 번째 곡은 황병기의 주법과 어우러져 새로운 느낌을 선사했다. 두 번째 곡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마지막 악장을 뜻하는 세산조시에 '변덕스러움' '일시적인 기분'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인 카프리치오 형식을 덧입혔다. 세산조시의 대표적인 말발굽 소리를 담은 선율과 카프리치오 형식으로 빚어낸 가락들은 정적인 느낌의 가야금연주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18현가야금을 위한 옛 가락의 변용은 다양한 옛 가락을 여러 장단으로 엮어 연주한 곡으로 작곡가이자 연주가인 최경철이 섭렵한 다양한 분야와 전통음악, 그리고 기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곡이었다.

25현가야금을 위한 휘모리 주제 변주곡 1번은 가야금산조의 휘모리를 바탕으로 했다. 앞의 세 곡은 18현 가야금으로 농현의 비중이 많고 전통가락 위주였다면, 25현 가야금은 18현보다 음폭을 확대시켜 서양의 음정을 모두 담을 수 있어서 화음 중심이며, 양손 연주로 화려함이 더해졌다. 대신 전통가락의 선율보다 휘모리 중 연팅김과 푸는 가락의 형식만을 가져와 연주자 본인의 기량을 더욱 뽐낼 수 있었다.

2부 연주곡은 독주와 앙상블의 구성으로 현대에 맞게 창작된 독주 가야금과 앙상블을 위한 「장미화원」과 「금어」 「두 갈래 길」 「첫눈」으로, 독주에는 25현 가야금, 앙상블은 25현 가야금 2대, 거문고, 저대 그리고 장구가 함께했다.

장미화원은 최경철이 스무 살이 되던 해 망월동 묘지에서 귀를 스치듯 떠올랐던 선율을 17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완성한 작품으로 5월에 영원히 이별한 청춘들이 장미가 되어 피어나는 장면을 그렸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거문고와

25현 가야금의 저음, 중음, 고음의 음과 음 사이사이에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오는 선율에서는 섬세함, 4대의 악기의 강한 가락에서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했다.

금어는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금빛 우물가에 서 춤을 추며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금정산 금샘 설화를 그린 곡으로 서정적이지만 선율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자가 연주하는 변주 선율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두 갈래 길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있는 인생을 표현한 곡으로, 늘 선택의 연속 앞에 놓인 인간의 갈등과 갈등이 잘 녹아있었다. 같은 가락의 반복을 옥타브로 변화를 주어 긴박함을 주었고, 가야금에서 연주를 잘 하지 않는 안죽(가야금 줄을 떠받치는 받침대)의 바깥쪽을 긁어서 연주하는 부분이 종종 나와서 잠시 황병기의 곡 중에서 미궁이 연상되기도 하였다.

이번 공연의 마지막 곡 첫눈은 첫눈을 맞은 어린아이의 친난만함을 그려낸 곡이다. 연주에서 마지막 곡은 너무 무거운 곡만 쓰지 말고 소품곡처럼 밝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을 써보라는 동료의 권유에서 작곡된 곡이다. 오늘 선보인 곡 중에서 가장 가볍고 밝게 표현하되 연주자들을 모두 소개해주고 싶은 최경철의 마음이 보였다. JAZZ 연주에서처럼 각 악기 연주자가 돌아가며 개인의 기량을 펼쳐 보이며 공연은 마무리됐다.

작곡가이자 가야금연주자인 최경철의 음악은 강하고 빠르다. 같은 선율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하고 변주한다. 그리고 한 음 한 음을 적절하게 배열하여 조화를 이루는 섬세함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작곡가로서 가야금연주자로서 그리고 다양한 무대의 예술감독으로 앞으로 그의 활약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한다.

글 김명수 가야금연주자

고대 향로 문화를 만나는 특별한 전시

‘香, 천년의 신비’

2024. 1. 1. ~ 4. 30. 한국궁중꽃박물관

한국궁중꽃박물관은 4월 30일까지 특별기획전 ‘香, 천년의 신비’를 개최한다. 고대부터 삶 속에 스며들어 향유되어 온 중국의 향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초창기 중국 향로를 대표하는 한 대의 ‘박산향로’, 차향 문화와 함께 향 문화가 번성했던 송·원·명·청 시대의 섬세하고 다채로운 ‘자기향로’ 등 다양한 향구와 함께, 대표 유물로 중국 청 대의 ‘강희년제국태평안향로’ 등이 전시된다.

향 문화는 고대부터 종교적 의식에서 사용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인 사대부들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香, 천년의 신비’에서는 이러한 향 문화의 시기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향로의 모습을 비롯해 섬세한 공예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향구들도 만나볼 수 있다.



강희년제국태평안향로 康熙年製國泰平安香爐

- 1 동향로 銅香爐
- 2 청동동향향로 靑銅鳳凰香爐
- 3 청동해태양이부향로 靑銅獬豸兩耳附香爐
- 4 도기원박산향로 陶器猿博山香爐



전시가 열리는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세계 유일 무이한 궁중 꽃 전문 박물관으로, 궁궐을 장엄하게 장식했던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궁중채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장인이 복원한 조선 왕조 궁중채화는 물론, 전통 건축 분야의 명장들이 참여해 10여 년의 긴 공정 끝에 한국 전통 궁중 건축 양식으로 건립한 박물관 건물과 운치 있는 정원까지 볼거리가 풍부하다.

특별기획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할인된 관람료로 사전 예약(네이버예약)을 통해 볼 수 있고, 전시해설과 카페 음료를 제공한다. 유아(5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FISH ING

낚시, 생존에서 예술까지
피싱 : FISH 생존×예술 ING

2023. 12. 13. ~ 2024. 2. 25.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Fishing, 피싱)은 '어로漁撈'라는 이름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피싱 : FISH 생존×예술 ING'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던 낚시가 점차 예술로 발전해 온 변천사를 들여다보는 전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를 향한 진심’을 찾는 데에서 이번 기획전을 시작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배가 언제 출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인류는 생존과 예술을 향한 열망으로 바다를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고 청동기시대 국보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 이진희 컬렉션의 「서암화첩」(조선통신사 수행화원으로 활동한 김유성의 화첩)을 비롯한 총 2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1부 ‘낚시, 기록된 물고기’에서는 조선시대 3종 어보인 『자산어보 茲山魚譜』 『우해어보 牛海異魚譜』 『난호어목지 蘭湖漁牧志』를 소개한다. 2부 ‘생존, 어구의 사투’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을까?”에 대한 답을,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어구 漁具인 국보로 지정된 청동기시대 낚싯바늘, 거꾸집 등 해양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찾아본다. 3부 ‘예술, 물고기의 멋’에서는 생존으로 시작해 예술로 승화한 바다와 관련된 문화를 만나본다. 신석기시대 몸을 장식하는 장신구 역할을 한 조개가면부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귀한 그림과 공예품으로 사랑받은 관련 작품들이다. 전시의 끝자락에는 파도치는 장면을 송출하는 실감형 미디어 영상(넥센타이어 제공)과 현대미술작가 정희욱의 작품이 만나 인간과 해양생물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바다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접점에 낚시가 있다”라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준비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께서 낚시를 비롯한 일상에 녹아있는 해양 문화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51)309-1781 / 편집실 / 사진_국립해양박물관 제공





1 아르노 아쉴라니 선수 © 아드리앙 셀베르
 2 파트리시오 마누엘 선수 © 마이아 플로르 3 아야 시쓰코 선수 © 프랑수아즈 위기에
 4 박미진 수영선수 © 김정란 5 김기훈 테니스 선수 © 김정란
 6 마리-아멜리 르 뤼르 선수 © 마갈리 랑베르



파리올림픽 기념전 챔피언들+끈기

2024. 1. 13. ~ 2. 18.
 부산프랑스문화원 ART SPACE

2024년은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부산프랑스문화원 ART SPACE는 스포츠 성과를 뛰어넘는 강인한 가치를 구현하는 파리와 부산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시리즈를 선보인다.

‘챔피언들’에서는 육상 트랙 안팎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고자 고군분투하는 프랑스 패럴림픽 챔피언 2인을 포함한 헌신적인 네 명 선수의 모습을 만난다. 이 챔피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또다른 시리즈로 ‘끈기’는 각자의 분야에서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부산 출신 장애인 운동선수 2명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챔피언들 Champion.ne.s

챔피언들에서 소개되는 사진은 네 명 사진가의 시선에 포착된 네 명의 챔피언이다. 이 작품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이다.

사진가 **아드리앙 셀베르**는 다수의 프로젝트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패럴림픽 챔피언 아르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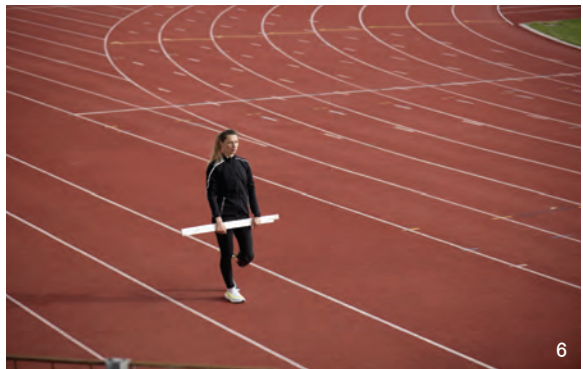
3



4



5



6

아쭈마니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셀베르의 시선은 휴식과 포기의 순간,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긴장을 풀고 있는 조각같은 몸, 친구들과의 만남 등 아르노 아쭈마니의 순간들을 포착했다. 사진가 **프랑수아즈 위기에**의 사진에는 아마추어 복싱 세계 챔피언 아야 시꼬코 선수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항상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등 강인한 그녀의 성격이 반영되었다.

사진가 **마갈리 랑베르**는 장애인 육상계의 챔피언이자 프랑스 패럴림픽 및 스포츠 위원회 위원장인 마리-아멜리 르 푸르의 일상에 몰입했다. 온화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마리의 의족은 차별에 저항하는 그녀의 헌신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사진가 **마이아 플로르**는 LA의 고립된 고지대에서 촬영한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프로복서인 파트리시오 마누엘의 웅장함을 보여준다.

끈기Perseverance

끈기는 챔피언들의 모습을 반영한 또다른 시리즈다. 사진가 **김정란**은 부산의 장애인 선수인 박미진(수영) 김기훈(테니스)의 훈련 장면을 촬영했다. 이 사진들은 두 선수에 대한 증언이자 헌사이며, 부산 장애인 스포츠 현황을 알리고 조명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선수의 스포츠 성과를 넘어서서, 그들의 업적을 축하하고 그들의 열정에서 영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문의_051)746-0342 / 편집실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인도현대도자전

2023. 10. 6. ~ 2024. 2. 25.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인도현대도자전'을 열고 있다. '다중적 현실-2023 인도 동시대 도예의 목소리(Multiple Realities-Voices in Contemporary Indian Ceramics 2023)'가 전시 주제로 동시대 인도 도자예술을 소개하는 전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17명 작가의 도자조형, 설치작품, 영상작품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구성된 32점의 작품은 각각의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배치한 돔 하우스의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불교문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문화, 언어, 예술 등에서 문화적으로 폭넓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인도, 인도와 김해의 공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도자 예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두 나라에서 흙은 실용적인 소재일 뿐 아니라, 장식 및 예식과 축제, 상징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도자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해왔으며, 동시대 도예가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 기법과 현대적 표현을 결합해 생활용품뿐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제작하고 있다.



1



2



3



4

- 1 엘라 무케르지_구불구불한 길
- 2 마두르 셴_일당 노동자
- 3 레야즈 바다루던_시간의 울림_세 폭 테라코타 병풍
- 4 삼파 사_본질

인도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고 굴절되면서도 공존하는 문화로 이루어진 나라이며, 급격한 기술 발전과 세계화에 의해 한층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과거의 매체와 작업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와 환경 변화를 따라 유연하게 변모하는 21세기 도자 예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들은 단지 과거의 보존뿐 아니라 문화적 기억과 역사를 구성하는 미래 도자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고 상상하는 도전을 펼친다.

L.N. 탈루르의 「Veni Vidi Vici(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고, 케샤리 난단 프라사드의 「환생」은 매 생애마다 삶의 부조리를 견디며 영혼을 수양하여 궁극적으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신성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다. 쉐리 밧나가르 작가와 팔라비 아로라 감독은 고대 유적지 신앙은 물론 다양한 유물과 드로잉,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조합한 영화를 통해 인더스 문명이 발굴되었던 시점을 복기하고 진귀한 도자기와 수많은 유물이 강탈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문의_055)340-7014 / 편집실





제4회 ARTISTART-아티스타트

2024. 1. 23. ~ 3. 2. KT&G 상상마당 부산

예비 또는 신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예술가들은 관객과의 만남이 절실하다. 일정의 과정을 마치고 갓 사회에 발을 디딘 예비 또는 신진작가는 많지만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나 전시장은 늘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가 예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ARTISTART-아티스타트'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ARTISTART-아티스타트'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지역 신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KT&G 상상마당 부산 대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ART(예술) ARTIST(작가) START(시작)의 합성어로 새로운 순간을 맞이한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작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을 응원한다.





- 1 박소진(경북대)_대명동 산227-4, 91×233.6cm, 캔버스에 유화, 2023
- 2 이서형(동아대)_인공과 자연의 경계, 가변설치, 레드 오크, 화이트 오크, 나뭇가지, 2023
- 3 구지안(경성대 사진학과)_Neverland(돌아갈 수 없는 공간), 72×92×5cm, digital inkjet print(cotton), wood frame, 2023
- 4 권아영(계명대)_사이의 봄, 65.1×50.0cm, oil on canvas, 2023
- 5 김도경(경성대)_직면, 122×244cm, 합판, 각목, 페인트, 인조 나뭇잎, 2023



올해 4번째로 열리는 'ARTISTART-아티스타트'전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대구·경북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두 10개 예술대학 12개 학과에서 예비 작가들이 참여했다. 회화, 조형, 영상과 같은 다채로운 장르의 100여 점 작품을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 전시는 3월 2일까지 열리며 이후 창원문화재단 후원으로 창원 소재 3·15아트센터에서 순회전을 갖는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우수작품 수상 작가에게는 작가 활동 지속 및 작품 제작 지원을 위한 상금과 서울 소재 KT&G 상상마당 대치 갤러리에서 추가 전시를 열 수 있는 기회도 제

공한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작가들이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매해 'ARTISTART'를 통해 지역 예비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신선한 작품을 소개하고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_070-8893-0894 / 편집실

진정한 쉼터의 의미를 찾는 여정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23. 12. 8. ~ 2024. 6. 16.

현대모터스튜디오부산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어워드 프로그램 ‘현대 블루 프라이즈’에서 2022년 수상한 박지민이 큐레이팅한 전시다. 전시명은 한 아이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는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996, 감독 임바스 키아로스 타미)에서 착안했다.

이번 전시는 정신적 피로와 소통의 부재에 지친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Shelter Next’를 제시하는데서 출발한다. 박 큐레이터는 “우리가 쉼터로 인식하는 ‘집’은 물리적 건물(House)’이라는 개념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집(Home)’이 될 때 공간을 넘어서 집과의 추억이 생겨나고, 나와의 정서적 교류가 더해질 때 진정한 쉼터로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관계 맺음’이다.

WHERE IS MY FRIEND'S HOME

1 유리 스즈키_히비키 트리

_알루미늄, 열연강판, 전자부품, 495×551×1255cm, 2023

2 아키타입_아열대로부터_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4분 50초, 수제 종이실험, 사탕수수, 수제 사탕수수 종이에 UV 평판인쇄, 예코톤 테이프스트리, 투명필름에 UV출력, 가변크기, 2023

3 스튜디오 셸터&기어이_이향정: 기억으로 만든 집 _VR, 컬러, 사운드, 17분, 작가 소장 오브제, 가변크기, 2022



2

전시는 네 가지 파트로 나뉜다. '이동_Mobility'에서는 이동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집은 더 이상 영원히 머무는 공간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한국에 기반한 사람들의 이동, 이주민 등의 이야기를 통계자료, 인터뷰 등으로 제시하는 오픈투베리어블스의 「연착륙」 등을 통해 진정한 셸터를 찾아 나아가게 한다. '확장_Expansion'은 새로운 셸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한국의 주거난 속 과거에 살았던 집인 이향정의 추억을 VR 경험으로 재정의·재구성하는 스튜디오 셸터&기어이의 「이향정: 기억으로 만든 집」 등이 전시된다.

'관계_Relationships'에서는 작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안하는 다양한 정서적 셸터를 보여준다. 진정한 셸터는 축적되는 추억과 교류로 쌓여가는 친밀함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유리 스즈키의 「히비키 트리」는 대화와 사운드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루시 맥래의 「압축 카펫 2.0」은 기계를 통해 포용을 재현하는 행위로, 김대옥의 「노리」는 머리카락을 땅을 밟는 과정을 통해, 정봉채의 「UPOJBC130810」은 우포늪에서 잠을 자는 백로 모습을 통한 편안함과 친밀감 등으로 오브제와의 정서적 공유를 보여준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아카이브 라운지_Archive Lounge'에서는 이번 전시가 탄생하기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관람객과 공유한다. 2017년 베이징에서 시작한 현대 블루 프라이즈 어워드 역대 수상자와 그들의 기획 전시, 심사위원, 프로그램 사진 등은 첫 번째 라운지에 소개된다. 두 번째 라운지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전시팀이 준비 기간에 아카이빙한 서적과 이미지들을 작품과 연결해 보며 전시를 마무리하게 돕는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집, 셸터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제안하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전시 해설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사전예약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현장접수 가능)으로 가능하다.



3

문의_1899-6611 / 편집실 / 사진_현대모터스튜디오부산 제공







Reincarnation



와룡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사되고 부러지는 매화나무 가지의 모습에서 날아오르고 싶은 간절함을 발견한다.
추운 겨울을 견뎌 따뜻한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꿈틀거리는 와룡매에도 날개가 돌아나길 바라면서...

환생

글 사진_장부봉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겨울, 늪세권에서

오래된 철새도래지, 겨울 우포에서는 시원하게 귀를 씻어내는 새들의 떼창을 먼저 만나게 된다. 멀고 지난했던 여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비로소 도달한 안식에 환호하고 있는 건지. 그도 저도 아니라면, 다시 떠나기 위한 채비로 분주할 따름인지. 입 달린 미물들의 재잘거림은 멈추지를 않는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 장엄한 오케스트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귀 달린 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듯 청각을 앞세운 채 높으로 향한다.



어떡하든 살아남아 봄을 구
가하여라, 한 뼉 남짓 피침형
의 잎사귀를 축축 늘어뜨린
그들의 분투에 더운 입김 한
모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심
정이다.

대대제방이다. 우측으로는 대대리 마을의 농토가 아득하게 펼쳐진
다. 네 계절의 추이를 땅에서 읽고 쓰는 곳이라 웬만큼은 대면대면
해진 풍경이지만 새삼 길게 눈이 간다. 두툼하고 실한 이랑에는 늦
가을에 파종된 마늘과 양파가 푸릇하게 물을 올리는 중이다. 얼었
다가 녹았다가, 겨울, 그 멀고 험한 여정을 버티느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게다.

과정을 알고서야 결과물에 수더분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몇
번의 겨울, 그들의 악착같은 생장에서 깨닫곤 했다. 그들에게 겨울
이란 여며 싸고 움츠리는 계절이 아니었다. 오감을 열어 뺏속까지 겨울을 체화하는 것만이 도태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곤 했다. 그들을 두고 목가적인 감상만을 읊조리지 않
게 된 것도 얼치기로나마 몇 해를 놀러 앉았던 덕분일 것이다. 어떡하든 살아남아 봄을 구가하여
라, 한 뼉 남짓 피침형의 잎사귀를 축축 늘어뜨린 그들의 분투에 더운 입김 한 모금이라도 보태주
고 싶은 심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아 /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 무엇으
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문득, 시인 박노해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겨울이란 본디 그런 계절인가 보다. 무심과 무관심 속
에서 애뜻한 마음을 끄집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무를 다가앉게 만드는 계절 말이다. 내가 그
들을 위해 내 안의 온기를 굶어 올리듯, 사방 행한 풍경들은 내 시린 어깨 위에 가난한 햇살을 얹
어준다.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을까.

제방을 사이에 두고 본격적인 겨울을 시연하는 곳이 좌측의 우포늪이다. 하늘도, 산도, 나무도,
지는 해도 서늘한 반영 속에서 겨울을 연출하고 있다. 이따금 홀로, 또는 무리를 지은 철새들이
수장된 풍경을 움켜쥐고 날아오르지만 파문이 멎으면 낱알의 풍경은 이내 제자리로 돌아와 따
스한 물의 식솔이 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목숨들이 훨씬 더 많은 늪의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납작 체적을 넓힌다. 늪, 그 광활한 시공 속에 잠긴 숲을 읽는다. 꽃도 잎도 메말라 낙하해버
린 우듬지에는 하늘이 빼곡하게 들어 차 있다. 충만이 있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차디찬 공허랄까.
무한 허공이 꽃 대신 만개한 풍경을 앞두고 여백으로 소통하는 계절, 겨울이 속속들이 체감된다.
가을의 만산홍엽을 위해 너무 많은 물감을 소진해 버린 것일까. 언젠가부터 사방이 죄 우중충 시

원샷은 색감으로 채색되다가 싶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멈춰버렸다. 광목천을 걸쳐 놓은 듯, 앙상한 가지 사이로 허연 여백만 무심하게 펼쳐진다. 비어 있으나 허허롭지 않고, 쓸쓸하나 쓸쓸함만 연출하지는 않는 저 푹푹한 여백. 그 여백을 마주하고서야 제방 입구에서 만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지그시 바라만 보'라던 글귀가 마음에 와닿는다.

한껏 톤 다운된 색감이 적나라하게 펼쳐진 겨울 우포늪. 하늘과 물과 숲은 단 한 번 유색의 입성을 걸치지 않았던 것처럼 고색으로 창연하다. 야윈 발목을 담그고 앉은 날^飛 것들과, 축축해진 그들의 반영조차 채도를 낮춘 파스텔톤이다. 그 모두의 합작으로 탄생되는 풍경은 오늘이라는 불고 푸른 욕망으로 칠감이 된 자들의 귀를 들추고 나직나직 태고의 숨소리를 들려준다. 잠시나마라도 폴썩폴썩 먼지 나는 일상을 갈았힐 수 있는 고요 속의 고요라 할까. 대대제방에서는 내 안의 어떤 나도 톤 다운된다.

새와 새와 새와 새... 우포의 주인은 단연 새다.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내륙습지로 500여종의 관속식물을 비롯하여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지만, 이 순간, 새만 보이고 새만 들린다. 인간이 제아무리 영장을 자처한다 해도 이곳에서만은 객일 뿐, 주인을 욕심내지 못한다.

꽤히 제3자의 자리로 몰려섰건만 고요와 적막과 나른한 평화에 자꾸만 감정이입이 된다. 만추의 저녁을 흔들고 가는 교회 종소리처럼 아릿하고도 습습한 파장이 내 안을 일렁인다. 머리 허연 중년 여자의 주책없는 감상주의로 치부를 당할지라도 맥을 놓고 평평 울어보고 싶어진다. 그런들 울 일과, 울 일이 아닌 것 사이의 미묘한 혼잡을 다독여 주는 것이 겨울 늪인가 보다. 이따금 수면을 분탕질 치는 바람에도 높은 평정심을 놓치지 않는다. 나고 죽고, 떠나고 돌아오는 공존의 현장으로서의 소임에 말없이 충실할 뿐이다.

보이는 것이 단출하면 생각의 결도 곰삭는가. 깊숙한 심호흡 몇 번으로 내 안에도 여백 한 장이 마련되는 듯하다. 낡은 감성의 펜을 든 채 수없이 썼다 지웠던 문장들과 그로 인해 드러나던 스스로의 아이러니, 그리고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나도 저물녘의 여백 뒤로 하얗게 갈았는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성에처럼 부엌에 가리고 들던 다소의 우울감도 말갭게 씻겨나간다.

보이는 것이 단출하면 생각의 결도 곰삭는가. 깊숙한 심호흡 몇 번으로 내 안에도 여백 한 장이 마련되는 듯하다.



불쑥,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늙은 생활권에 삶을 꾸린 것이. 비록, 부와 명예로 삶을 호화롭게 치장해주는 ALL세권이니 역세권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아쉽지는 않다. 더는 신기루 같은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전력질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늙세권이니 말이다. 조금 남은 욕망의 잔재들이 나를 펄떡거린들 대수랴. 아직은 미진하지만, 늙은 말씀에 솔깃하다 보면 삶의 비린기에도 초연해지는 날이 올 것이니.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까. 하늘이 한 뼘쯤 낮아진 기분이다. 서너 마리 청둥오리가 자그마한 역세 폴딩 위에서 젖은 발을 말리고 있다. 비스듬히, 역새가 그려내는 바람의 각도도 편안해 보인다. 나는 그들을 두고 속엿 것들을 비워 본 자들만이 누리는 평온이라 읽기로 한다.

체감기온에 떠밀리듯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한다. 밤이 오면 새들도 뜨겁게 달구었던 목청을 내려놓지 않을까. 칠혹처럼 검어질 늙은 고요를 휘방 놓지 않기 위해 나도 그만 자리를 비워주어야겠다.

글 문경의 수필가

협회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산미술협회 신임 회장 **최장락**



- 부스 개인전 2회 및 국내외 기획 초대전 250여 회
- 동명대학교,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및 외래교수, 부산미술협회 디자인분과 이사·회장 외 역임 다수
- 현) 한국미술협회·부산미술협회 회원, 비영리법인 부산국제디자인제 운영위원장, 부산경상대학교 겸임교수 외 다수

2023년 12월 16일, 부산미술협회 제32대 회장단 및 임원감사 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당선된 최장락 신임 회장은 향후 4년간 부산미술협회를 이끌게 됐다.

1946년 부산미술가 동맹으로 시작한 부산미술협회(이하 미협)는 명실공히 부산미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2년 뒤면 창립 80년이 된다. 최 회장은 이러한 미협이 해나가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바로 미술계에서 협회가 해야 할 '아젠다 Agenda'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미협 존재 이유는, 선거 당시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도 한 '협회 발전' '회원 복지' '공정 실현'의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즉 미협의 존재 이유를 찾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술계에 목직 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미협의 존재감을 단단하게 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1997년 미협에 입회한 그는 28년 이상 미술계에 몸담으며 부단한 고민과 궁구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는 만큼, 느낀 만큼 최소한의 방향 제시는 꼭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마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제한된 정보만 담을 수 있는 팸플릿 외에 별도로 모바일이 지원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유권자인 미술인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항목화가 잘 되어 원하는 내용을 찾기 쉽고 이미지와 텍스트, 동영상이 적절히 사용된 홈페이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부산미술발전연구방안' 항목이다. 미협에서 시행 중인 연간 사업, 지원 정책 등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이 적혀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공약 제시는 방식과 내용에서 그의 진정성을 심분 느끼게 했을 테다. 당선됐지만 자만하기보다 앞으로 추진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그래서다. 본인의 당선은 그저, 지금 이 시기에 부산미협을 누가 적절하게 이끌 수 있겠냐는 각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따라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전 부라는 뜻이다.

그는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당시 부산공예학교) 1회 졸업생이고 산업디자인으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디자인 분야 작품 전시도 꾸준히 했지만 사업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 활동과 대외 활동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유독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 지금은 부산의 명소가 된 '감천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시초가 된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기획팀으로 참여해 마을 골목골목을 작가들과 누볐다. 닫고 있던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까지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때 그는 진심이 담겨야 소통이 된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민락 수변공원, 서면愛 굴다리 아트 벤치길 등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경험이 풍부한 것도 그의 강점이다. 2013~15년까지 부산시 전시지원 공모사업에 '부산미협 아트페어 제안사업'을 기획 및 발표했고, 2017년 총괄기획을 맡아 부경대학교 앞에 조성한 '청년 창조발전소 고고씽 job'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국제디자인제 운영위원장으로 국제 참가자들과 교류·협력하며 매해 특정한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전시를 꾸려오기도 했다.

이제 미협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철학을 녹여낼 때다. 부산미술과 미협 회원을 위한 인명사전을 아카이빙하고 행사·공모사업을 정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를 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하여 정보의 영속성을 확보한다. 그는 어떤 원로작가를 만나 "내가 없으면 작품은 다 불태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작가의 영혼이 담긴 작품을 디지털로나마 영구히 보존하고 아울러 작

가의 이름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하는 게 아카이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체감한 사례다. 물론 이러한 아카이빙은 해외를 비롯한 외부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물어물어' 찾는 게 아닌, 키워드로 찾을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 부산에서, 그리고 미협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 이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인으로서, 미협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미술인의 날'을 제정하고 부산미술제와 연계하여 더욱 실질적인 행사로 부활시킨다. 부산미술제가 개최되는 해에 걸맞은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춰 작업한 주제전과 일 반전으로 나누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다. 작가의 작업이 아트페어 등의 판매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많은 회원이 당부한 바와 같이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부산 미술대전의 국내외적 위상을 강화한다. 미협의 미래인 청년 작가를 위해서나 작가의 본령인 작업과 그 전시를 위해서나 대형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데, 부산의 유산으로써 원형을 보존하면서 항구도시 부산만의 역동성까지 가져 갈 수 있는 부산항 제1부두 옛 창고 건물('2022 부산비엔날레' 행사 전시장으로 사용됐었다)을 염두에 두고 실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출산장려부처 등과 협의해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 시 미협 회원작품을 기증하는 사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탬과 동시에 미협의 존재감을 다방면에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구상했다.

그는 분석하고 최상의 것을 도출해 시각화하는 '디자인 마인드'를, 시와 구·군, 산업계와의 연계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경영 마인드'에 접목해 일하고자 한다. 확고한 철학과 계획에 기반한 그가 이끌어 갈 부산미술협회가 그 존재 이유를 공고히 해나가길 소망한다.

글·사진_이효민

문학의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작가 **박정선**



- 1987년 『문학정신』 신인상(시조)
2007년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소설)
- 장편 『유산』 『꽃들은 말이 없다』 『순국』 외
- 평론집 『존재와 사유』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인간에 대한 질문』 『사유의 미학』 외
- 시집 『바람부는 날엔 그냥 집으로 갈 수 없다』 외
- 에세이집 『고독은 열정을 창출한다』 외
- 기관 선정
장편 『백 년 동안의 침묵』(2012년 문광부우수교양도서 선정)
소설집 『청춘여찬시대는 끝났다』(2015년 한국우수출판콘텐츠 선정)
장편 『수남이』(2006년 한국예술위 창작지원 선정)
- 부산시문화상, 심훈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대상(소설),
부산문학상 대상(소설) 외 다수 수상

언제나 뜨겁게 타오른 작가, 오로지 문학을 위한 열정주의자 박정선 소설가를 만났다. 날마다 한 그루 나무를 심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글을 쓴다는 박정선 소설가는 글을 쓰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며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옆에 있으면 저절로 뜨거워짐이 느껴진다. 오로지 문학이 숨쉬기라는 작가의 얼굴에는 한겨울 추위 속에도 문학의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Q. 먼저 지난해 부산시문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국제신문에 “박정선은 부산에서 글만 파고들며 살기로 유명한 작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작가 박정선을 말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치열한 열정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글 쓰기에 매진하는 작가로 유명하신데 선생님의 하루하루 작품 생

활이 궁금합니다.

A. 감사합니다. 작가는 누구나 치열하게 마련이죠, 더욱이 소설가는. 눈 뜨면 가장 먼저 컴퓨터를 열어요. 보통 하루에 열여섯 시간 정도 컴퓨터에 앉아 있게 되는데, 산책을 잠시 나갈 때나 병원에 갈 때도 반드시 책을 들고 다녀요. 컴퓨터를 떠나 있으면 불안하니까요. 이걸 일중독이라고 하더군요. 의자가 구멍이 나서 버린 적이 있어요.(웃음)

Q. 문학을 하신 동기나 또 언제부터 문학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장배경도 궁금합니다.

A. 문인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초등시절부터 문필을 날렸죠.(웃음) 초등 2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선생님이 “엄마가 써줬지?”라고 하더라구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할아

버지는 성리학을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한문만 읽고 쓰신 본인데 어린 손녀(녀)를 위해 자주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전래동화부터 안데르센 동화까지 할아버지로부터 맨 처음 접하게 되었죠. 그게 습관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도서관에서 해가 질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책을 빌려와 밤새는 줄 몰랐죠. 그 후 대학에서도 문학을 공부했지만 공식적인 등단은 1987년(『문학정신』, 시조)이니까 올해로 37년이 됐군요. 그러나 예술은 오래된 경력과 능력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으니 예술에서 경력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예술인은 항상 신인의 태도로 임할 때 좋은 작품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어제의 작품이 설사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깡그리 잊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니까요.

Q 항상 신인의 태도를 견지하라는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는 충고로 들립니다. 선생님은 선이 굵고 보폭이 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의 대표작과 지금까지 내신 작품을 말씀해 주신다면.

A 대표작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일대기를 묘사한 『백 년 동안의 침묵』과 『순국』(상, 하), 친일파에 관련한 작품 『유산』을 들 수 있겠어요. 장편 10권, 소설집 5권, 평론집 6권, 시집 8권, 에세이집 등 30여 권을 냈지요.

Q 선생님께서는 강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 가을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역사를 통해서 본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A 말 그대로 시대정신이란 그 시대가 지향해야 할, 태도와 의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갈등이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양분되어 있어요. 그 양분이 갈수록 풀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굳어져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나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에요. 이진 국

가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매우 불행한 현상이에요. 그걸 문인들이 문학으로 풀어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사르트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문인은 사회적 문제, 도덕적 문제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감지하고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Q 지금까지 작가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선생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A 사실 저는 30대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여 나를 계도하는 좌우명 9가지를 써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았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 ‘인간존중’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에게 무엇을 준 다음에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남에게 받은 것은 잊지 마라”는 시인 신물념(神物念, 施人慎勿念, 受施慎勿望)을 실천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말은 후한(後漢)시대 최자욱(崔宰)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인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인용한 거죠.

Q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지금은 무슨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밀란 쿤데라와 그의 작품 『농담』이 항상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을 쓰고 있어요. 이 작품 완성하고 나면 앞으로는 확 변신하여 순정한 사랑을 쓸까 합니다.

순정한 사랑, 기대된다. 경력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신인의 태도로 임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 계도하는 자기 관리, 그리고 시대정신 등 오늘 선생의 명강의를 듣는 듯했다. 앞으로도 선생의 건강과 건필을 기원한다.

클_김새록 시안수필가 / 사진_정지영

선·면·색과 함께
서로를
공정하는 공간,
'권달술 조각마당'

조각가
권달술

-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예술대학장 (1980-2009)
-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운영위원장,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 국전 문공부장관상(1976), 황조근정훈장(2009),
부산시문화상(2018) 외 수상 다수
-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부산미술대전 외
다수 심사위원,
한국현대조각초대전, 부일미술대상전 외
다수 운영위원장 역임
-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상징조형물,
부산국립국악원 옥외조각 등
주요 공공조각 및 조형물 다수
- 작품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바르셀로나시립미술관 외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권달술 조각공원'을 두른 양산천 변 물 빛은 청룡처럼 우직하면서 낭창하게 푸르다. 마당을 들어서자 커다란 원 안, 와이어에 매달린 앙증맞은 의자가 길손을 환대한다. 처음 들른 터에는 눈에 익은 듯 낯선 조형물들이 제각기 선과 각을 뽐내며 자리를 잡았다. '무엇이 놓인' 예술적 공간이다.

권달술 선생은 공간 속을 유영하는 조각가이다. 공간을 열어 공간 속으로 확장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으로서, 자로 자른 듯 반듯한 기하학적 형태보다는 삐뚤빼뚤 못생긴 좀 더 유연한 선을 지향한다. 자연 친화적인 선, 존재의 본성에 부합하는 선에 이끌린 것이 아닐까 싶다.

양산시 충렬로 828. 36번 국도를 지나다니다가 양산천 물가의 반신대 바위에 반해서 2003년 이곳에 터를 잡았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 같은 허공, 만약 거기에 동전 하나라도 던지면 의미 있는 예술적 공간" (2019 야외조각전 Artist's Note 著)으로 탄생한 지 20년째다. 2019년 4월, 부산시문화상 수상을 기념하여 '야외조각전'을 열었다. 전시회 후 남은 작품을 재배치해 상설 전시를 하게 되었고, 2020년 <권달술 조각마당>으로 방문객을 맞고 있다.

60여 년 조각에 매진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선생은 부산을 활동 무대로 부산조각가협회를 창설하는 등 부산지역은 물론 대외적으로 조각의 가치를 높였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던 어린 시절부터 미술과 함께해 온 여정을 음악이 있는 따뜻한 공간에서 경청한다.

"언양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동네 어른들이 화투놀이를 즐기셨는데 짝이 없는 화투를 그려주었더니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초등학교 때 교실 뒤편 게시판에도 그림이 자주 붙여졌고요. 중학교 시절 우쭐한 마음으로 미술 특활반을 찾았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친구(송영명 전 부산예총 회장)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기가 죽어

결국 미술반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미술반에 들어갔다. 미술 담당은 조각을 전공한 신봉섭 선생님이셨는데, 조각하는 선배들도 멋이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에서는 얼굴밖에 만들 게 없었음에도 작품을 완성하니 잘한다고 했다. 그러다 교육미술연구회에서 주는 상도 받게 되면서 스스로도 조각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쭐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 조소과에 입학했다. 그때만 해도 홍익대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던 시기였다고 한다.

"학생들 대부분이 서울예고 출신이었고,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공부를 한 덕분에 3학년 때 국전에서 특선을 했어요. 대학생이 특선을 한 건 대단한 일이라 신문에도 크게 나면서 더욱 우쭐해졌지요. 그게 나를 망쳤습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특별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10년간 작품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대학 4학년 때 부친의 사업이 잘못되어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학교 장학제도가 좋아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김세중 교수가 대학원을 권유했지만, 굶는 게 너무 싫어 취직을 위해 부산으로 도망을 왔으며 오래 전 선택을 아쉬워한다.

"당시는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대학원을 갔더라면 서울대 교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선택은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고 2때 5.16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화를 위해 공대, 상대는 3% 이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는 역지를 부려 미술을 택했지요. 미술실에만 있다 보니 수학이 싫었거든요."

10년 뒤인 1976년 국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유명

| 예술가열전 216



세를 뒀다. 1967년부터 부산여자대학교 강사로 들어가 1979년에 전임이 되었다. 이 기간(12년) 동안 만족할 만한 작품을 하지 못했고, 상은 받았지만 흡족하지 못했다. 스스로의 꿈을 작품화하기 위해 학교에 있으면서도 형태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90년부터 10여 년 만에 육면체 외곽라인으로 작품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2008년부터 해 온 선을 조각으로 6면체 외곽선을 흐뜨려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선생의 작품은 부산지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큰 작품을 만든다. 수영만올림픽기념탑 성화대,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 부산국립국악원 옥외조각, 요산 김정한 선생 흉상, 고층아파트(해운대 두산위브드제니스, 명지동 삼정그린코아 등) 옥외조각, 해운대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정·후문 분수조각 등등. 곳곳에 설치된 작품 중에서 애정하는 작품은 무엇일까?

“나에게는 부산에서 가장 큰 작품을 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작품보다 훨씬 작아요. 나는 길거리에 놓일 작품을 만들 때 거리와 주변의 모든 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니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게 되지요. 가령 1억

을 받아 작품을 한다고 할 때, 그 돈을 다 투자해요. 그런 면에서 나는 돈을 벌 줄 모르는 사람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부럽기는 하지만 성품이 그러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지금도 나는 빛지면서 살거든요.(웃음) 사회적으로 제일 알려진 작품은 아무래도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 작품 <확장하는 꿈>일 겁니다. 2010년 부산비엔날레 영구 설치 작품이지요. 60년 동안 작품을 만들다 보니 이 밖에도 내가 마음 속에 담아둘 수 있는 작품들이 많고 볼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답니다.”

작가는 작품의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다. 손으로 작품을 하든 안 하든 매여있어야 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이고 생각이다.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받쳐주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한다. 조각은 전람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상 같은 크기인 서양화나 조각작품도 재료에 따라 다른데, 금속 작품은 30~50배의 경비가 들어간단다. 또한, 사람들이 작품을 집에 가져다 놓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고 모험인데다 선생의 작품은 크다 보니 잘 안 팔린다며 순정한 미소를 짓는다. 조각 외 다른 어떤 것에 취미가 있는지 궁금했다.

“할리데이비슨과 함께한 <권달술의 전국 일주 준법투어>가 떠오르네요. 2006년 2월 초였어요. 63살 먹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가 물의를 일으킨 신문 기사를 봤어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갑인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준법투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지요. 양산부터 경주, 포항, 울진, 강릉, 속초, 화진포, 진부령, 양평, 서울, 인천, 서해안, 전주, 남원, 하동, 부산을 일주일간 투어했어요. 그때 울진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에는 태백산에 눈이 많이 쌓여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부령도 그랬고요.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바퀴가 두 개라 위험해요. 안전을 위해 아내가 짐차를 타고 따라왔는데 산 정상에서는 차에다 오토바이를 매달고 이동을 했지요. 준법투어가 인터넷으로 모습이 알려지면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릴레이로 나와서 환영과 환호를 해주었어요. 힘도 들었지만 전국 할리데이비슨과 대형 오토바이 마니아들 사이에 유명인사가 되었지요. 이후 ‘이륜차 바로 타기’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고, 회의 참석하러 강원도 미시령을 밤 12시에 올라가다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이 밖에도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제가 무엇에 한번 빠지면 심취를 하는 편이에요. 한때 10여 년간 스키에 빠지기도 했고, 오토바이, 골프, 낚시 등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며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 대충 못하는 성격인 게요.”

좋은 곳에 보란 듯이 조각작품을 세우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차라도 나누고 싶었던 소망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권달술 조각가의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다. 존재의 전제조건인 ‘관계’로부터 배열하며 쌓는 ‘적’, ‘온에어드로잉 시리즈’, ‘땡땡이’ 등등. 꺾고, 두드리고, 내리치고, 포장하고, 뚫고, 쌓고, 용접하고, 매달고... 자다운 자가 없었던 시절 종이를 여러 겹으로 접어 직선이 아닌 삐뚤빼뚤 못생긴 불안정한 선으로 속이 없는 형태의 정사각형을 만들고, 조각 위에 땡땡이를 그려 넣기도 한다. 그런 작업이 만만할 리 없다. 그럼에도 시간의 흔적이 없다.

“건강 관리는 따로 하는 것이 없어요. 헬스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강을 한 바퀴 돌곤 하지요. 요즘은 새벽마다 매일 목욕탕을 찾아 스쿼트와 푸샵을 꾸준히 하며 하루를 엽니다.”



On Air



2007-드로잉0703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정도로 기억되면 좋겠다. 사람들 모두 각자 애쓰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라며 멋쩍어한다. 말할 때마다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이 노년의 무거움이 아닌 예술가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여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한정된 지면에 풀어낸 필자의 시선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선생의 족적에 누를 끼친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 현대조각의 기품이 양산천 변 ‘권달술 조각마당’에서 청룡의 활기로 내일도 용솟음차길 염원한다.

글사진_노옥분 시인

No. 25

동 동 숲
0 0 표

권 명 해

차나무 열매이

개울물 소리

수다가 영글고 있다

산길을 모른 짝.

백일홍의 가늌손이 부채꼴란다

동시 등락순 작은글 마을

굴참나무가 도서관의 무게를 단다

울창한 숲길에 나의 도서관을 짓고

지그재그 느낌표 마음을 꽃아 두

천년의 꿈.

작가노트 | 고성의 동동숲 작은 도서관에서는 꿈이 자라고 있었다.

글_권명해 부산문인협회 감사, 부산시인협회 사무국장

RE: VIEW

- 문학** 서너 백년 기다린 완창과 절창
김소해 시조집 『서너 백년 기다릴게』 _ 정희경
- 미술** 미동(微動)하는 색면들이 말한다
조부경 '집 빛 기억' _ 김영준
- 영화** 따스한 가족초상화 앞에서
〈교토에서 온 편지〉 _ 김지연
- 연극** 지구 종말의 한계상황에 처한 마지막 인간들의 실존적 고뇌
부두연극단의 종말체험 〈End Game〉 _ 김문홍

서너 백년 기다린 완창과 절창

김소해 시조집 『서너 백년 기다릴게』

글_정희경 문학도시 편집장

“시조는 고리타분하다” “시조는 음풍농월이다” “시조는 창으로 불린다” “시조는 조선시대 문학이다” 등 아직도 현대시조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시조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심한 국민이다. 1년간 발간되는 개인 시조집과 전문 잡지가 몇백 권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는 시조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문학진흥법에 시조가 독립 장르가 된 지도 몇 년이 흘렀다. 그동안 시조시인들은 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시조를 알리고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해 왔다. 시조시인들은 애국심, 혹은 단순히 우리 것이라는 것을 내세워 시조를 국민문학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시조가 우리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문화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국민문학이다.

참 오랜 시간 완창과 절창의 시조를 기다리며 삶 자체가 시조인 김소해 시인의 여섯 번째 시조집 『서너 백년 기다릴게』를 만나면 시조에 대한 그간의 편견은 사라질 것이다. 치열하게 시조에 천착하고 퇴고에 퇴고를 거듭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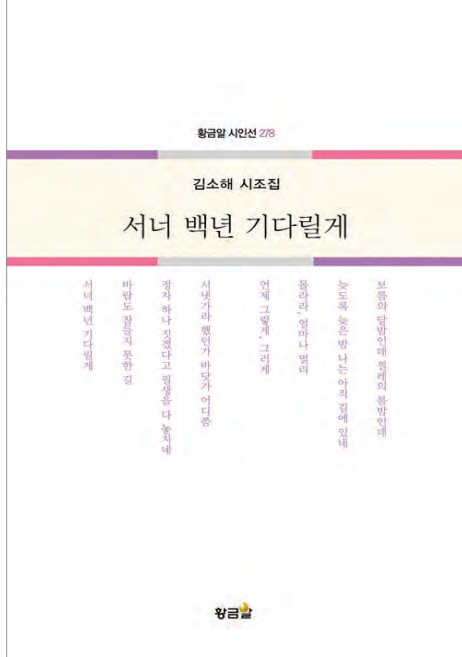
새끼 잃은 어미 소 그 울음을 들은 적 있다/들어 올린 북채가 화음을 치는 순간/가슴팍 소 한 마리가/길을 잃고 헤맨다//등근 방점 쿵쿵 짝는 오케스트라 큰북 한 채/악기란 악기 소리 풀어 안는 우렛소리/저음의 깊은 울림은, 텅/저 소의 빈 가슴이다 - 「큰북」 전문

한 편의 시조에서 북소리가 끝도 없이 울린다. 그것도 가슴

을 치면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오케스트라 큰북”은 곧 “새끼 잃은 어미 소”의 울음이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처음으로 울리는 큰북의 소리를 “새끼 잃은” “소의 빈 가슴”이라는 글자로 표현하는 능력이 범상치 않다. “어미 소” “소 한 마리” “저 소” 등 소의 지칭을 다양화하고 “울음” “화음” “우렛소리” “울림”이 “빈 가슴”으로 집중되어 반복과 지루함을 피하고 있는 점도 퇴고를 거듭한 결과이리라. 이 시조를 읽으면 큰 눈망울을 가진 소 한 마리가 너른 들판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우는 모습과 오케스트라 속의 큰 북의 울림이 오버랩된다. 독자는 소와 함께 속울음을 울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소의 희생 또한 한자리를 잡고 있다.

그 노인 땀기발 길과 한 몸이던 거기/기다리던 발소리 산으로 가셨으니/적막에 귀 열어놓고 길도 따라 길을 버린//안타까이 우거지는 쇠뜨기며 패랭이며/조문이듯 위로이듯 순장을 덮어준다/풍장도 마다 않아서 산이 되는 비탈길 - 「길의순장」 전문

“순장”이라는 시어로 작품을 쓴다면 과거로의 소급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시조는 “순장”이라는 시어의 가치를 가장 현대적으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땀기발”을 일구기 위해 수없이 오르내린 길, 그 길이 기억하는 “그 노인”의 “발소리”, 그러나 그가 없는 길, 그 길도 그를 따라 순장한 것이다. “쇠뜨기며 패랭이”도 조문하듯 길을 덮고 결국 비탈길은 “산이 되”었다.



에 비유된 “사랑네 분식점”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구조조정”에서 “역병”으로 간판을 내려야 하는 우리 소상공인의 아픔이 “네 식구 따스한 등지”마저 위협하는 실정이 되었다. 시조시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개발에 희생된 “장미주택 동백연립”(“우리 동네”), “재건축이 밀다 놓친”(“달빛공장 완월동”), “잔치는 푸짐해도 초대받지 못한 원주민”(“죄”) 등 재개발에 밀려난 그늘진 곳을 감싸준다. 그리고 그 절정은 “부산항 지게 노동자들 항의 시위”를 “쓰러진 풀 아직 운다”라고 표현한 “풀을 다시 읽다”에 있다. 주위를 살뜰히 살피는 작가만이 이런 소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사라져가는 것들을 시조로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굳이 농촌의 인구감소라는 이성적인 논지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노인을 따라 순장한 그 길, 그 아름다움 하나로도 이 작품은 시조로서의 품격을 지킨 작품이다.

악보에 담지 못한 노래가 여기 있네/어매의 어매로부터 그들이 물든 소리/내딛는 걸음걸음이/그냥 그대로 화음이던//문자보다 음표보다 먼저 태어난 노래여서/아리랑 굽이굽이 일렁이는 마음이던/완창도 절창도 아닌/시작도 끝도 따로 없던//감자밭 감자두둑 알이 굵은 까닭이사/밭고랑 호미질에 노래가 없던 때 문/가시고 한참 후에도/알은 여직 굵어 있네 - 「하지감자」 전문

밭고랑 호미질에 꼬리 자르고 도망가던
//도망은 가더라도 제 살을 자르다니//얼마나 다급했으면 아픈 줄도 몰랐을까//구조조정 찬바람은 바닥에 먼저 불어//명함은 없더라도 꽃잎같이 내걸었던//사랑네 분식점 간판 그 덕으로 그나마//그나마 그 덕으로 네 식구 따스한 등지//이마저 시샘하는 역병, 금줄을 둘렀다//도마뱀 꼬리 자르듯 간판을 내린다

- 「도마뱀 꼬리를 자르고」 전문

『서너 백년 기다릴게』의 또 다른 미덕은 김 시조시인의 주위에 존재하는 작고 여린 것들에 따듯한 시선이 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시조가 안고 있는 시절가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이다.

“밭고랑 호미질에 꼬리 자르고 도망가던” 도마뱀

“악보에 담지 못한 노래”는 어머니의 노래다. “완창도 절창도 아닌/시작도 끝도 따로 없던” 우리 어머니의 노동이요, 삶이다. “하지감자”를 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에서의 어머니의 노고가 전통적인 여성의 삶으로 확대된다. “문자보다 음표보다 먼저 태어난 노래”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삶을 견인하며 “감자두둑 알이 굵은 까닭”이 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헌사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어머니를 그리면서 구황작물인 “하지감자”라는 독특한 소재를 선택하여 “알은 여직 굵어 있네”라고 전통을 현재에까지 끌고 오는 힘을 발휘한다. 또한 여운을 길게 남겨, 김소해 시조시인만의 개성이 여지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김소해 시인에게 있어 “악보에 담지 못한 노래”는 시조라는 생각이 든다. “완창도 절창도” 아직 아니라며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조시인, “늦도록 늦은 밤 나는 아직 길에 있네”라며 “바람도 잠들지 못한 길” “서너 백년 기다” (“절레꽃 명당”)린다는 김소해 시조시인, 그의 시조는 절창과 완창을 서너 백년 기다린 독자에게 이미 단비 같은 존재이다.

미동(微動)하는 색면들이 말한다

조부경 '집 빛 기억'

글_김영준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외래교수

새로 얻은 작업실. 오래된 주택이라 손 볼 데가 많다.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작업실이란 그저 작업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요컨대 나만의 주관으로, 정서로, 나만을 위한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작업은 물론이거니와 나만의 세계에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현실도피처이기도 하다. 아무튼, 미단이 나무 창호와 문틀에 벗겨진 페인트를 수리하면서 은근히 장난기가 발동했다. 창틀과 문틀의 색을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하여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마치 몬드리안(Piet Mondriaan, 1872-1944)의 '컴포지션(Composition)' 이미지가 머물렀다. 나만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쓸쓸한 특권과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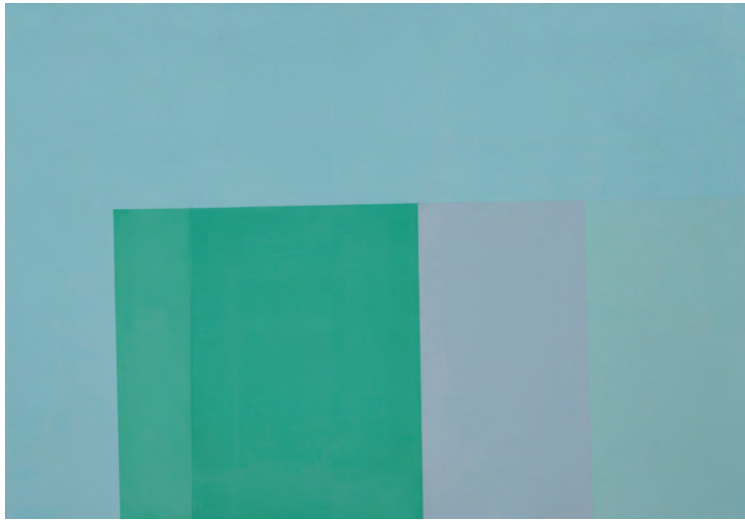
조부경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었던 몇 가지 감성이 문틀과 창틀의 색을 달리하며 얻은 것과 상호 간의 연상을 불러냈다. 물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조부경의 여전한(?) 작품 이미지에서 잠시 과거의 러시아 구성주의를 견주어 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부경의 그림을 회화 장르에 놓고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 없다. 몬드리안 같은 색면 추상이니 차가운 추상이니 해 봤자 그저 외관상의 유사함 때문일 것이다. 조부경의 시도는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것들과의 거리 두기는 작업방식과 의도, 감상법에서의 문제다.

사실인즉 회화사를 공부할 때, 러시아 구성주의니 미래주의니 하는 격동기의 미술은 매력이 없었다. 일단 스펙터클한 감성이나 드라마틱한 은유적 반전이 없었기에 말이다. 그런

데 우리는 같은 부류의 것은 같은 색,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는 심리적 도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거스른 창틀과 문틀의 색 차이는 묘한 긴장감, 명시성, 무미함의 피로도를 줄여 주는 특효가 있다. 어쩌면 인간 감성 기저에 깔려있는 증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우리가 예술을 추구하는 미감의 원형질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덧 미술도 유행을 탄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지식의 편린이 자꾸 공리처럼 작용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이름 붙이기를 해야 했고 새로운 범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에 안달이 나 있다.

조부경의 그림을 볼 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어쩌면 저 단순한 색면 회화를 어떻게 저리도 끈질기게 할 수 있지? 좀 쉽게 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무모한 우문(無門). 하지만 조부경의 작품은 역시 현대미술의 기초 안에서 작동한다. 그녀의 단순해 보이는 작품을 인내심으로 응시했을 때, 작품은 그 진가를 발휘하고 스스로 존재감을 표현한다. 화사한 색 면이 얼룩을 품고 있는 것은 수많은 색의 겹침효과이다. 그녀의 작업은 사실 경제적이지 않은 행위 반복에서 이루어진다. '이 면은 초록색 물감 하나로 칠해도 될 것을...'과 같은 감상 오류가 그녀의 가성비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 노동과 색 겹침의 반복행위에서 온 오해다.

수묵화의 먹의 농담(濃淡)에 비유하자면, 종이에 먹물의 스밈과 겹침, 그리고 그것의 반복과 먹의 농밀도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이다. 아크릴 물감의 농도와 겹침을 통해 드러나는 밀 색 흔적이 쌓이고 쌓여서 두께를 만든다. 두께는 시각 주



Untitled_Acrylic on canvas, 112.1x162.2cm, 2023



Untitled_Acrylic on canvas, 91x72.7cm, 2023

체가 볼 때 깊이로 드러난다. 이 깊이는 수학적 데이터로 산출될 수 없다. 오직 작가만의 경험으로 연출할 수 있는 변화다. 이 겹침의 행위를 몇 번을 반복했을까? 수십, 수백 번, 작품 전체로 보면 수천, 수만을 넘긴다. 이해가 가는가? 이 가성비 형편없는 행위를! 하지만 작가의 작업은 그녀의 화면에서 좀 더 디테일한 변화와 새로운 언어를 찾기 위해 다른 톤으로 수없이 반복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녀의 그림은 2차원적이다. 하지만 겹침의 누적과 그 시각적 깊이감은 면과 면의 경계에서 또 다른 하나의 축을 만든다. 결국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2차원이 되었던 3차원이 되었던, 작가에게 문제 될 것 없는 토팩이다. 하지만, 감상자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색면의 깊이(深)를 인식할 수 있는 은유가 된다. 이 겹침의 행위는 단순히 밑 색의 배어나옴만의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반복은 시간의 누적이다. 공간에 시간이 누적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삶과 같지 않나?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생산적 행위는 그저 조부경 작가 스스로가 자기의 언어로 살아가는 방식을 흔들림 없이 보이는 것이다.

좀 더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을 특화시켜 보면, 물감의 농도에 대한 변화와 색채의 선택, 구성의 새로운 시도와 같은 것이다. 좀 묽은 물감의 겹침을 통해 밑 색의 배어나옴

효과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과거의 물감보다 도포성을 줄여 밑 색의 배어나옴을 증가시켰을 때, 색층 간의 차이와 조화가 화음을 만들어 리듬과 떨림이 증가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은 절제된 사각 면들이 제식(制式)하듯 도열해 있는 구도도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의 확장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변화'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와 확장된 언어를 경험키 위해서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 한다. 과거의 그림부터 지금까지의 것을 놓고 봐야 할 일이다. 일견하면 '오랜 시간 변함없이 유사한 색면만을 그리는 작가로 오명 받기 쉬울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의 눈도 조금씩 조금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곳을 머물러 응시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스펙터클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가 조부경은 이렇게 쫓기는 시선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미감을 말한다.

필자의 감각이 무뎠거나 기억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조부경 작가의 새로운 겹침의 미학을 보고 싶다. 파장이 달라진 미세한 떨림은 어떤 모양이며 어떤 색일까? 그녀는 그 새로운 언어를 얻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물감 겹치기를 해낼까? 그림의 떨림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작품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따스한 가족초상화 앞에서 〈교토에서 온 편지〉

글_김지연 영화평론가

영도는 많은 어린이의 고향이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제 근원에 관해 물으면 어른들은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했다. 영도는 한국의 아픈 근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영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도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점이다. 금정구 사람, 동구 사람, 해운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영도는 구라는 행정단위이기도 하지만 제주나 거제도처럼 섬이기도 하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가 사고의 구조를 반영한다면 영도 사람이라는 조어에는 어떤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걸까? 언제나 궁금했다. 단순히 육지와 섬을 구분하려는 데서 비롯한 건지. 살고 있거나 떠나왔거나 간에, 그곳에 품은 깊은 애정의 발로인 건지. 혹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교토에서 온 편지〉(2023)를 보면서, 영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떠올렸던 질문을 생각했다. 주인공 세 자매의 집은 영도였다. 아마도 연출자 김민주 감독의 출신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 영화의 카메라가 부산, 영도라는 장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짐작은 확신이 된다. 영화는 철저히 누군가의 삶들이 이어지는 터전이라는 전제에 기반해 움직이고 있지, 장소가 품은 아름다움이나 개성에 좀체 기대려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바다, 영도다리를 오가는 출근길, 뜨내기손님, 주고받는 대화 속에 담긴 구전 설화, 비탈이 많은 지형처럼 생활 반경 안에서 은근히 지역의 특성이 발견된다. 주인공들에게 부산은 현재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고 자란 고향에는 미울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오래 알아 정다운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 많은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향은 그들에게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먹으면 돌아올 수 있는 보루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 대부분에게 보편적인 인식일 것이다. 다만 어머니(차미경)를 비롯한 노년의 세대에게는 그게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



애초에 그들의 고향과 이곳은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자의가 아니라 역사와 시대에 떠밀려 뿌리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달리 말해 그들의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거나 가볼 수는 있더라도 너무 늦게 그것이 가능해진 상태다. 세 자매의 어머니는 자신의 병세를 계기로 딸들에게조차도 줄곧 꺼려왔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떠난 고향 방문을 생각하게 된다.

영화는 혜진(한재아), 혜영(한선화), 혜주(송지현) 세 자매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드라마라 할 수 있겠다. 맏이인 혜진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일찌감치 가장이 되었다. 항구도시인 만큼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정작 그는 부산을 벗어난 적이 없다. 기회가 와도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최근에는 애인과의 헤어졌다. 둘째인 혜영은 문예창작학과를 지망해서 집안에 평지풍파를 한번 일으킨 모양이다. 하지만 뜻대로 서울에 가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 원하던 작가는 아직 못 댔어도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제 꿈을 접지 않았다. 고3인 막내 혜주는 가족에게 숨긴 채 댄스를 배우고 대회도 준비하며 장차 둘째 언니처럼 서울에서 사는 꿈을 꾀다. 영화는 혜영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데서 시작해, 어머니의 병세와 함께 변화를 겪는 가족의 모습을 세심하게 펼쳐낸다. 애정을 갖고 그려낸 사람살이의 다양한 일면들이 거기에 있다. 약간의 허풍이 들어간 자식 자랑, 복닥거리며 함께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활의 크고 작은 다툼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변인들까지.

어머니의 병세와 고향 방문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며 자매들은 삶의 양상이 많이 달라진다.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전개와 뚜렷한 암시와 복선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지켜보는 일은 관객의 입장, 다시 말해 그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맏이 내지는 가장이라는 책임과 의무감에서 좀 자유로워진 듯한 혜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산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혜영, 소원하던 서울살이를 신나게 시작한 혜주다. 이를 두고 그들 가족이 서로를 덜 위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 지낸 시간은 서로 간에 갖는 신뢰와 유대,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안다. 그것이 이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도.

홀로 가족을 부양하려는 마음만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다. 당장 완벽하지 않지만 내 삶이 무리지 않은 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꿈을 찾아가는 일이 가족과 등지는 일도 아니다. 주어진 삶과 조건 안에서 나름의 일상을 힘껏 살아가는 인물들을 보는 건 참 흐뭇한 일이다. 꼭 한 지붕 아래 부대끼지 않더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얼마든지 연결돼 있다. <교토에서 온 편지>가 소박하게 건네는 진실 앞에, 나는 영도 사람이라는 말이 품은 배경은 그곳에 대한 애정인지도 모르겠다. 는 추측에 살며시 무게추를 실어본다.

지구 종말의 한계상황에 처한 마지막 인간들의 실존적 고뇌 부두연극단의 종말체험 <End Game>

글_김문홍 극작가, 연극평론가

형식 실험으로 일관한 연극적 신념

극단 [부두연극단]은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이 극단은 창단 이래 한결같이 일관성 있는 레퍼토리 공연의 연극적 신념을 지켜오고 있다.(국제신문 2023. 12. 27. 문화면 기사 참조) 창작극보다는 번역극을, 상업적 재미 위주의 작품보다는 해외의 현대 고전 명작, 부조리극, 동시대의 해외 문제작들을 주요 레퍼토리로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해 오고 있다. S.베케트의 전 작품을 공연했고, 주요 레퍼토리로는 <고도를 기다리며> <에쿠우스> <19 그리고 80> 등이 있다.

부두연극단이 세밀을 장식하는 지난해 마지막 공연으로 종말체험 <End Game>(S.베케트 작, 이성규 재구성 연출, 90분, 2023. 12. 26. ~ 30. 액티스소극장)이라는 이색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베케트의 <승부의 종말^{End Game}>을 환경연극으로 재구성하여 선보였다. 방사능 오염, 지구 온난화, 바이러스 창궐로 인류 90%가 멸망하고, 마지막 남은 네 사람(햄, 클로브, 햄의 부모)이 표본실이라는 한계상황에 갇힌 그들의 실존적 고뇌를 표현했다.

이 작품은 환경연극이면서 관객 역시 무대를 지켜보는 타자가 아니라, 이 표본실에 피신하여 그들의 마지막을 적극적으로 관찰하며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관객참여형 연극'(이머셔널 씨어터)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객은 입장하면서부터 마스크를 배부받아 착용하고 손을 세척 하는 과정을 겪는다. 극장에 입장하면 방호복을 입은 해설자(권철 분)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해설자는 객석 여기저기에 소독약을 뿌리는가 하면, 극이 시작되면 관객할 때 관객의 처지와 입장, 그리고 태도를 권유하기도 했다.

극이 시작되면 해설자는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극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의 역할을 부탁하기도 한다. 때로는 극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며 극 중 장면을 설명하는 일종의 서사극적 화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극 속의 클로브(이동희 분)가 빈대가 나왔다면 살충제를 뿌리면 극 중 의사 역(권철 분)을 맡은 배우가 직접 소독약을 객석에 뿌리기도 하고 가상의 쥐를 쫓기도 하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전직 의사였던 햄(박상규 분)은 방사능 오염으로 보지 못하고 건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전직 의사 햄의 조수였던 클로브(이동희 분) 역시 오염되어 절룩거리며 앉지 못하는



형벌을 감수하며 햄의 하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햄의 부모인 나그(김경수 분)와 벨(조미경 분)은 쓰레기통에 갇혀 사육당하고 있다. 햄은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한다. 그는 자학적이고 어느 때는 냉소적인 독백을 일삼으며 때로는 철학적인 대사를 읊조리고, 그의 하인인 클로브는 마치 작가의 분신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이 작품의 주제를 은유하는 대사와 독백, 방백을 일삼는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실존적 고뇌에 대한 환경연극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이들의 실존적 고뇌를 보여준다. 클로브의 몇몇 대사는 인간 멸종의 상황에서 다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살아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때로는 인류의 재앙은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자연의 방치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든 것은 인간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언자적 구원을 은유하는 방백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관객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성찰의 말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구원자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말미 부분에서 클로브의 망원경에 잡힌, 자신의 배꼽을 내려다보는 아이의 발견은, 이 아이로 인해 다시 인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암시를 주기도 한다.

극의 종결 부분에서 클로브는 방독면을 쓴 채 표본실을

떠나고, 햄은 자신을 성찰하며 죽음을 수용하는 독백을 중얼거리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다. 그들의 승부는 결국 종말을 맞고, 이 비극적 상황을 관찰자적 태도로 지켜보던 관객 역시, 환경에 대한 성찰로 극장 밖을 나서며 환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일종의 서사극적 비전으로 관객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행동까지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일종의 도덕적 교훈의 연극으로, 연극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 햄과 클로브의 몇몇 대사를 살펴보면 작품의 주제의식과 작가의 현실 인식을 추론할 수 있다. 작품 후반부에서 클로브는 “누군가 말했다. 바로 그거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전 들었어요. 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모든 게 단순하고 명료해질 테니. 전 들었어요.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정성껏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대사를 끝으로 바깥으로 나간다. 그전에 모든 것이 다 소멸한 사이에서 아이가 자기 배꼽을 보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도 역시 클로브이다. 이런 에피소드를 추론해 볼 때 우리는 그의 희망적 세계관을 짐작할 수 있다. 클로브는 곧 작가의 분신이나 다름없다.

올해 부산지역 연극계 마지막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두연극단의 종말체험 환경연극 <End Game>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극단의 연극적 이념과 목표에 적합한 공연으로 창단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재미 위주의 공연으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엄혹한 현실을 냉담하게 바라보는 연극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지만 작품을 해석하는 연출자의 독창적인 실험적 형식미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연극 문법을 엮고 있다는 점이다. 관객을 연극에 참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연극을 소재로 한 관객참여형 연극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극장의 모든 스태프가 방호복으로 갈아입은 채 관객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해설자라는 새로운 인물의 설정으로 시종일관

무대의 상황과 인물을 관찰하면서 극에 간접 개입하기도 하고, 관객의 허구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작인 베케트의 <승부의 종말>이라는 난삽한 희곡을 '지금 이곳'의 환경오염과 접목시켜 관객에게 접근하기 쉬운 공연 텍스트로 전환하고, 30여 쪽에 달하는 환경에 관한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 작품의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대 세트 역시 표본실에 가깝게 장치하고, 시종일관 음울하고 절망에 가까운 극적 분위기를 위해 어두운 청색 계통의 차가운 색감의 조명 디자인 역시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조금 서툴고 깔끔하지 않아도 연극 정신이 살아있는 그 형식미학을 살리려 안간힘을 쓴 연출자의 그 정신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다.



관객의 상상력을 보강하는 입체적인 대사의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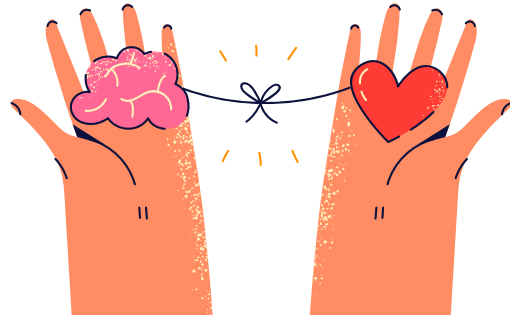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이 작품은 극적 행동이 약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대사가 극의 추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극 중 인물 화술의 정확한 운용이 절대적이다. 클로브 역의 이동희는 표정과 시선 처리, 다양하고 입체적인 연기 패턴으로 극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문제는 햄 역의 박상규 배우이다. 엄청난 대사량을 소화하는 만큼 관객에게 말하는 방백과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독백, 그리고 대사를 입체적으로 운용하고 앞서서 연기하는 만큼, 대사의 입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동을 보완하는 표정, 시선, 마음을 입체적으로 구별해 관객의 상상력을 보강하는 대사를 운용해야 하는데, 그 점이 흡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다소 아쉬웠다. 햄의 아버지(김경수 분)와 어머니인 넬(조미경 분)은 행위 연기와 제스처, 그리고 표정 연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 대사의 발성이 명확하지 못해 대사 전달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연극은 모든 장면에 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커튼콜까지의 마무리도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시종일관 애써 무대를 지켜본 관객들의 감정입에 방점을 찍는 행위이며 주제와 작가의 현실 인식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커튼콜 역시 연극의 연장선 상에 있어 관객에게 마지막 서비스를 한다는 예의로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해야 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것이 좀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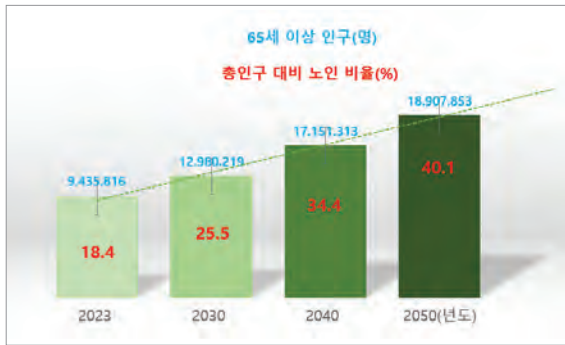
평자는 지난해 부산지역의 연극 결산을 생각해 보면서 연출자의 형식미학이 돋보이는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 부두연극단의 종말체험 환경연극 〈End Game〉을 위시해서, 연출의 힘을 보여준 동그라미 그리기의 〈집을 떠나며〉(박장렬 연출), 옛 가옥의 방을 옮겨 다니며 억압과 굴욕적인 여성주의의 서사를 보여준 극단 C의 〈레드 힐 Red heel〉(황지선 연출), 연기 앙상블과 무대 미술의 예술적 미학을 보여준 극단 시나위의 〈세자매〉(이기호 연출), 시극 형태의 난해한 희곡을 시적 판타지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표현한 극단 공연예술 창작집단 어니언 킹의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전상배 연출), 연작 연극의 형태로 현실을 희극적 톤으로 풍자한 극단 배우 창고의 〈매혹적인 이야기〉(김가영 연출), 배우의 힘과 연기 앙상블, 무대 전환의 기능적 순발력을 유려하게 시도한 극단 동녘의 〈1945〉(최용혁 연출), 시극 형태의 철학적인 선문답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숨의 연대를 일깨우고 강조한 극단 일터의 〈하늘을 먹는 자 좌플 친식이〉(김선관 연출) 등의 작품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작품들은 하나같이 연출자의 독창적인 형식미학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부두연극단의 〈End Game〉은 원로 연출가의 끊임없는 형식 실험의 열정을 확인하게 한 몇 안 되는 공연 중의 하나였다.

예술치료II

치매와 예술치료



부산은 ‘영화’의 도시다. 그리고 ‘노인’의 도시다. 전국의 8대 광역시 중 부산이 유일하게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했다는 뉴스를 올해 초 신문 지면을 통해 읽었다. 초고령사회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부산 토박이인 필자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노인 인구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50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즉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이다.



(65세 이상 인구 추이)

노인 인구의 증가는 심혈관계 질환, 말초혈관계 질환, 암, 당뇨,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져 환자 본인을 비롯하여 가정과 사회 전반에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중 치매(Dementia)는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치매 노인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를 핵심적인 노인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국가

책임제를 발표하고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관 기관에서는 치매 노인에게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 배회구조팔찌, 실종방지인식표를 보급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하여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갑작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도 실행 중이다.



TV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광고 중 하나가 치매에 관한 보험이다. 치매 진단보험, 치매 간병보험, 치매 요양보험 등... 그만큼 치매는 우리 일상에서 낯설지 않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여전히 두려운 단어이다.

치매란 도대체 무엇인가?

치매란 다양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판단, 언어,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뇌 기능의 발달이 저하되는 상태 혹은 일시적인 기억 장애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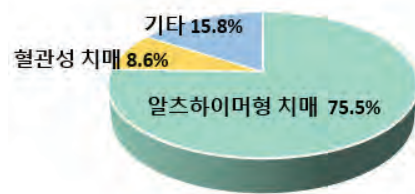
후천적으로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이 일어나는 증후군 Syndrome을 말한다.(중앙치매센터, 2023) 치매의 영문 표현인 ‘Dementia’는 라틴어 ‘dement’에서 유래되었는데 ‘없다’라는 ‘de’와 ‘정신’인 ‘ment’의 합성어으로써 ‘정신이 없다’ 혹은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이다.(권중돈, 2004, p.13)

징후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매의 단계를 초기, 중기, 말기의 3단계로 구분한다. 초기 건망기는 시간 약속이나 길을 잃어버리고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계산 착오 등의 일시적으로 사소한 기억 장애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치매는 점진적인 진행을 보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간과하기 쉽다. 이러한 초기징후 발생 후 3~8년까지가 혼란기에 해당하는 중기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시간, 공간, 주변 인물을 파악하는 지남력을 상실하게 되고 어의 Semantic 부분에서도 기능 저하를 보여 ‘이것’ 혹은 ‘저것’ 등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뿐만 아니라 배회나 위생에 따른 행동의 변화마저 일어나므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단계이다. 이 혼란기가 치매 조호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다. 마지막 말기를 치매기라 하는데 이 시기는 기억 망각으로 인해 판단 기능이 거의 소실되므로 보행불가, 변실금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따른다. 성격도 공격적으로 변하며 주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자가 돌봄 Self-care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유혜숙, 2011, p.9) 또한 체력 소실로 인한 외상상태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長谷川 和夫, 2002, p.27)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다식多食,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는 빈식頻食, 다른 이의 음식을 훔쳐 먹는 도식盜食, 먹지 못할 것을 먹는 이식異食,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거식拒食 등의 섭식장애도 일어난다.(大國 美智子, 2014, p.127)

치매의 원인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다. 그 외

감염대사 장애, 중독성 장애, 결핍성 장애로 인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저산소증, 염산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해당된다. 치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질환은 대부분이 만성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非可逆的인데 언제부터 증후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점진적으로 긴 세월을 걸쳐 나빠지는 것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체 치매의 5~10% 정도는 부분 호전을 포함하여 치료가 가능한 가역성 치매로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중독성 장애,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대사 장애, 결핍성 장애 등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지정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2023)

중앙치매센터에서 2021년에 발표한 국내 치매 유형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전체 치매 유형별 중 7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혈관성 치매가 8.6%를 차지한다.



〈치매 유형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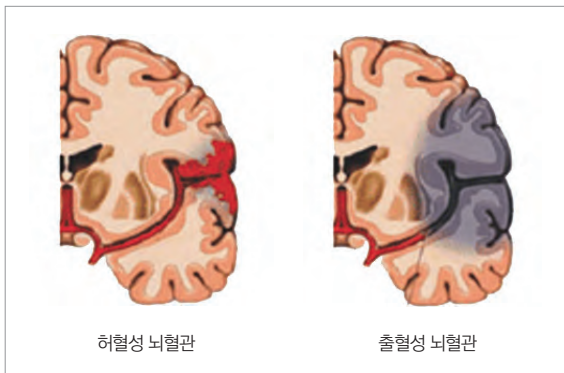
독일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 1864~1915) 박사에 의해 최초로 의학계에 보고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정상적 기능의 뇌세포들이 점진적으로 퇴화하여 인지적 감퇴를 일으키는 퇴행성 치매이다.(Alzheimer's Association, 2017)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생존 기간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발병 후 10.3년에서 20여 년의 생존 기간을 나타내며(권중돈, 2012, p.63)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에게서 2배 높게 나타난다.(김정순, 이봉숙, 2002, p.5)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뇌는 정상인의 뇌에 비해서 조직이 많이 손실되고 수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협회 Alzheimer's Association, 2023〉

출처_www.alz.org/alzheimers-dementia/what-is-alzheimers/brain_tour_part_2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장병, 비만, 흡연 등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혹은 좁아지고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으로 나뉘는데 둘 다 뇌의 원활한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권중돈, 2012b, p.149)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달리 혈관성 치매는 안면 마비, 구음장애, 시야 상실 등의 신체적인 병을 수반하는 원인 질환이 확실하므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여성과 비교해 남성에게서 1.5~2.5배 높은 발병률이 보고된다.(김경순, 이봉숙, 2002, p.6)



〈알츠하이머 협회 Alzheimer's Association, 2023〉

출처_www.alz.org/alzheimers-dementia/what-is-alzheimers/brain_tour_part_2

예전에는 치매를 노망Senility이라 부르며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라 여겼지만, 오랜 연구를 통하여 최근에는 극복해야 할 뇌의 질환으로 여긴다. 치매는 장기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가지므로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개입을 모두 집약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치매 치료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복이 가능한 기능은 회복시키고 잔존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증상이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 대표적인 비약물적 개입으로는 운동치료, 인지훈련치료,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예술치료 등이 있다.(중앙치매센터, 2023) 필자는 이 중 음악, 미술, 사진, 문학 등의 예술 매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치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매 노인을 위한 예술치료에 관하여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치료에서 김찬영(2022), 채공주 외(2021), Waters et al.(2013) 등은 음악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무력감 감소, 불안·초조·우울 감소,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미술치료 연구에서는 편명신 외(2023), 이하린 외(2022), 이윤주 외(2020) 등이 치매 노인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증진, 우울감 완화, 시각적 기억력 증진, 자아존중감 향상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은지(2023), Goldstein-Levitas(2016) 등은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긍정적 정서와 자아통합감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격 성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사진치료 연구에서도 김미성 외(2023)는 사진치료 프로그램으로 치매 노인의 인지 및 신체적 기능과 긍정 정서가 강화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치매 노인에게 나타나는 인지, 정서, 행동 등의 여러 증상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예술 매체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통합예술치료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엄세정(2018)은 예술 매체 중 음악, 동작, 미술을 활용한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생활 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이미

정(2017)은 문학, 동작, 미술, 음악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필자 역시 치매 노인과 통합예술치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2017년에 음악, 미술, 무용/동작, 영화, 사진 매체를 통합 적용한 30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2회 치매 노인에게 임상 적용한 결과, 치매 노인의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 행동이 증진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미디어와 예술 매체를 통합한 12회기 프로그램을 치매 노인에게 적용한 결과, 치매 노인의 우울감이 완화되고 예술 활동에 관심이 증대한 연구도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음악, 미술, 사진, 동작을 적용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 노인의 인지과 대인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인지 점수와 대인관계 점수가 평균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예술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가 치매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면에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주어 치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예술은 감정을 일으키고 즐거움을 준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공동 주최로 힐링 아트 심포지엄 Healing Arts Symposium이 개최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개선을 위해서 예술에 투자하라(Invest in the Arts to Improv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이다. 이는 예술의 역할이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자연의 순리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처럼 노화를 거부하는

본능 또한 존재한다. 의학의 발달과 식습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100세 시대'를 떠올리면 웰빙(Well-Being), 웰에이징(Well-Aging), 웰다잉(Well-Dying) 등의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연관된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균형을 통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에서의 연(緣)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치매 노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직 발레리나였던 치매 노인에게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40여 년 전 무대에서의 발레 동작을 재연한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 수 3백만을 넘기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예술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였다.

필자가 가장 의미 있게 새기는 존 로크(John Locke)의 말로써 치매와 예술치료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예술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비한 힘이다(Art is a mysterious force that gives meaning to life).'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였음)

글_김소형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예술치료학과 교수



부산예술회관예술단-합창단 단원 모집...지휘자는 고영호 선정



지휘자 고영호

부산예술회관(관장 오수연)이 부산예술회관예술단-합창단(이하, 합창단)의 운영에 앞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합창단은 부산시민들에게 음악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하모니를 만들어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합창단의 초대 지휘자는 공모를 통해 모집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친 끝에 남구립 오록도 여성합창단, 서구립 여성·소년 소녀 합창단, 남구립 울드 시니어 합창단 등을 지휘하며 합창단 지휘자로서 경력을 쌓은 고영호 지휘자가 최종 선정됐다. 고 지휘자가 이끌어 갈 합창단의 단원은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등 총 35명 이내로 모집하고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가 합창단의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며 힘을 실는다. 문의 051)631-1377

부산음악협회 부산음악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개최

1. 20.(토) 오전 10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왼쪽부터) 회장 권성은, 수상자 김병기, 수상자 최민경(조희주 대리 수상), 수상자 김주영

부산음악협회의 2023년도 정기총회가 1월 20일 개최됐다. 제1부는 제49회 부산음악상 시상식, 제2부는 총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부산음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국내외에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준 이에게 선정되는 부산음악상은 3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공로상은 2023년 부산음악대축제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부산의 6개 음악대학과 부산음악협회 신인팀 두 팀을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같은 해 12월 서울 코스모스 아트홀에서 열린 시계루 가와이 초청연주회 '가와이 피아노와 함께하는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부산 6개 대학팀과 부산음악협회 신인팀을 이끌고 부산음악의 위상을 드높인 김병기(피아니스트)가 받았다. 현재 부산음악협회 피아노 분과위원장, MBC라디오

'가정음악실'의 해설자로 활동 중이다. 연주부문 수상자는 김주영(바이올리니스트)과 최민경(피아니스트)이다. 김주영은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창원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스트링 아데소 리더, 라에투스 듀오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최민경은 2023년 리차드 윌트컴 장군 오페라 갈라 추모 음악회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고, 2007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매년 독주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는 권성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감사(회계·사무) 보고, 부의안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은 ▶2023년도 결산보고 및 결산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부산음악협회 회칙 변경 3가지로 모두 통과됐다. 부산음악협회는 부산음악대축제,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음악회', 송년음악회 등 기존 사업 외에도 부산예술회관예술단-합창단 활동 주관에 따른 창단 공연 등 더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히며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부산미술협회 창작공간 입주작가 선정

부산미술협회가 위탁운영 중인 두 곳의 창작공간에서 활동할 입주 작가가 선정됐다. 부산 3대 명산 중 하나인 용두산에 자리한 창작공간 '용두산 미술의 거리'에서는 박지언(공예) 안수진(한국화) 윤연정(한국화) 이규열(디자인) 이수아(공예·디자인) 정소영(공예) 작가가, 원도심 변화가의 중심에 있는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는 배하람(서양화) 손효진(서양화) 송상현(주얼리디자인) 이승훈(시각디자인) 작가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입주작가로 활동한다.

청년작가와 중견작가로 구성된 입주작가들은 용두산 미술의 거리의 경우 개인 창작공간, 재료비 및 활동비 일부를 지원받고, 부평아트스페이스의 경우엔 개인 창작공간, 상·하반기 교류전 등을 지원받는다.

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 및 제31대, 32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1. 25.(목)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가 1월 25일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대한민국미술인상 정예작가상 전달,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시상식과 제31대, 32대 회장 이취임식이 함께 열렸다.

먼저, 재임 기간 부산미술협회에 끼친 지대한 공로와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는 공로패는 제31대 회장 박태원, 부회장 최상철 김정우 안정연 바다두에게 주어졌다. 감사패는 센텀의료재단 이사장 박종호, 광흥건설주식회사 대표 김규학이 받았고 대한민국미술인상 정예작가상은 안태준 작가에게 전달됐다.

투철한 작가정신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참미술인을 발굴, 포상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부산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제23회 오늘의 작가상'의 본상은 홍익중(판화)이, 청년작가상은 이정윤(조각)이 받았다. 홍익중 작가는 "부산미술계에 판화로 데뷔할 즈음부터 줄기차게 주목 혹은 소나무로 보이는 나무의 외롭고도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특유의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해 그 끈질긴 고품격의 작가정신을 높이 샀다"는 심사평을, 이정윤 작가는 "현실의 공간을 다양하고도 즐겁게 휘젓는 듯한 영역의 무한계성과 거기에 걸맞은 내용들을 거침없고도 명쾌하게 풀어나감으로써 가히 이 시대의 청년작가다운 기개와 혼을 인상 깊게 보여 주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총회는 2023년도 경과보고, 2023년 사업결과 보고, 감사 보고 등에 이어 ▶2024년 사업계획(안) ▶2024년 경상비 예산(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이어서 2020년부터 4년간 부산미술협회를 이끌어 온 박태원 회장과 최장락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부산미술협회는 올해도 제50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제44회 부산미술제, 제13회 BFAA아트페어 등 행사 개최와 「부산미술」 소식지 발간,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금련산갤러리 운영 등을 통해서 미술 문화 향상 발전 도모와 미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의 작가상 본상 홍익중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 이정윤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정기총회 개최

2023. 12. 13(수) 오후 5시 해운대 돌레랑스



부산꽃예술작가협회(회장 이미라)가 지난해 12월 13일 해운대 돌레랑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 사업계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하게 의논한 내용은 3가지다. 협회 차원에서 공익사업에 참여해 꽃예술의 아름다움과 힘을 알리는 것, 자체 세미나를 강화해 결속력을 다지고 협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 꽃장식·원예치료 활동 등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가는 것이다. 부산꽃예술작가협회는 2024년도 사업으로 ▶시각장애

인주간보호센터봉사 ▶춘계연수회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갈매랑축제 ▶부산예술제 ▶세미나 ▶크리스마스 작품 콘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지역에 꽃예술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부산연극협회 정기총회 개최

1. 23(화) 오후 4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연극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가 1월 23일 열렸다. 2023년도 사업결과 및 경과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에 앞서 부산연극상 시상식이 먼저 개최됐다.

‘제18회 부산연극상’은 2023년 한 해 왕성한 연극 활동을 통해 협회와 부산연극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심사위원의 추천과 논의를 통해 추대 선정되는 ‘예인 연극상’은 부산연극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부산 연극계 발전에 이바지했고 2023년 한 해 왕성한 활동을 통해 부산 연극인의 귀감이 된 연극배우 권철에게 주어졌다. ‘올해의 연극인상’은 최용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젊은 연극인상’은 김가영 김성은이 받았다. 심사위원단(강성우 김태호 서승우 손병태 이기호)은 최용혁에게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상임 연출자로 2023년 부산연극제와 대한민국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어방축제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 부산연극을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작품 〈1945〉를 통해 연출가로서 치열한 분석력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부산연극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심사평을, 김가영과 김성은에게 각각 “2023년 개인의 예술적인 활동과 함께 부산연극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극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 “2023년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로 꾸준히 활동했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서산·안동·의성·경주 등 자리를 넓혀가며 부산연극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격려했다.

부산연극협회는 2024년에도 ▶제42회 부산연극제 ▶제2회 부산푸른새싹 공연예술축제 ▶제9회 부산청소년연극캠프 ▶제7회 작강연극제 등의 사업을 펼치며 부산 연극계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예인 연극상 권철



올해의 연극인상 최용혁



젊은 연극인상 김가영



젊은 연극인상 김성은



시네바움 2월 강좌 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문화공간 시네바움(대표 배정선)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아카데미 시네바움을 연다. 올해는 영화, 사진, 철학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2월 5일에는 이강욱 영화감독, 김영광 영화평론가와 <아유, 오맹달(2021. 7min)> <김밥이여요!(2023. 13min)>를 감상하고 '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을 주제로 강연한다. 19일은 저자와의 북토크로 『신경과학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의 저자 김남호 울산대 철학교 교수로부터 '자유 의지, 그 너제로의 초대'를 주제로 한 강연이 열린다. 26일은 북클럽의 인문학 코너로 박정은 부산여성신문 편집국장이 나와 '읽은 책 & 만든 책 그리고 만들 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중구 우등불 3층에서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삼백수도 열린다. 문의 010-2774-3455



운파교방지무, 김소영의 춤

2. 1.(목)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가무동행은 딸의 춤사위에 엄마의 소리가 더해지는 따뜻한 무대다. 춤꾼 김소영은 피아노와 국악기로 음악적 자질을 키우다 뒤늦게 전통춤에서 적성을 발견해, 지금은 박경량 문화에서 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김소영은 박경량류 <허튼진쇠 놀음춤> <영남교방춤> <교방소반놀음춤>을 추고, 부산국악협회 이사로 활동하는 엄마 한임정은 단원들과 경기소리 중 <창부타령> <청춘가> <태평가>를 들려준다. 모녀가 함께 <앵고춤과 서도소리>로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모녀의 합동 공연에 힘을 보태려 박경량 이사장이 직접 해설자로 나선다. 엄마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가 작은 효도라 생각하는 김소영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9991-0118



음악극 '적로-이슬의 노래'

2. 3.(토) 오후 3시/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선명 2024 기획공연으로 열리는 <적로>는 서로의 소리를 알아준 친구 백아와 종자기처럼 서로의 소리를 치켜세우며, 사랑한 두 명의 명인 박종기와 김계선 그리고 산월이에 대한 이야기다. <적로-이슬의 노래>는 방울져 떨어지는 이슬 滴로와 악기를 통해 흘러나온 입김에 의한 물방울 霧, 그리고 예술가의 혼이 서린 악기 끝의 핏방울 赤露이란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아랍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시 '모든 낮과 밤, 희미한 갈대 소리, 그 음악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진다'는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다. 서로의 소리와 춤으로 보듬고 쓰다듬었던,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는 한순간, 하룻밤을 상상하며 만남과 이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출연 박종기 이상화, 김계선 정윤형, 산월 하윤주.

문의 051)811-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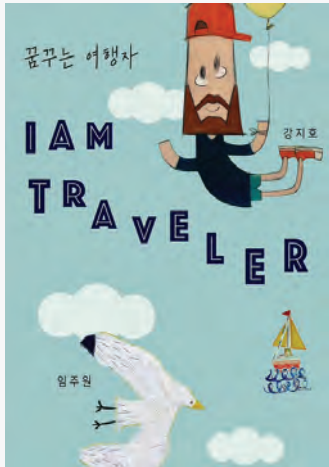


김중복전

~2. 23.(금)
소울아트스페이스

김중복은 한국전쟁 후 일본으로 유학, 프랑스 파리 그랑 쇼미에르를 수료한 국내 1세대 서양화 작가다. 작품 전반은 미술사적으로 '표현주의' 화풍에 가까운데, 표현주의에서 주로 발견되는 역동성과 색채, 감정 등의 요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평론가 서성록은 작가의 작품에 대해 '한국 미술계를 한층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평한다. 보편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며 색을 겁겁이 올리는 과정을 통해 단순해 보이지만 조화롭고 탄탄한 화면을 구성한 작품부터 내면을 담은 보다 부드러워지고 서정적인 작품까지 다양하다. 그만의 기법으로 묘사된 파리의 거리, 산과 자연, 내면의 풍경 등 약 50여 년 간의 조형세계 전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초로 공개하는 신작 판화도 다수 선보인다.

문의 051)731-5878



꿈꾸는 여행자: I AM TRAVELER

~2. 23.(금)
갤러리 아트숲

갤러리 아트숲의 2024년 첫 기획이며 105번째 전시는 강지호, 임주원 작가와 함께하는 '꿈꾸는 여행자'이다. 강지호 작가는 버려진 목재를 이용해 '잭JACK'이라는 캐릭터가 마치 스스로를 대변하듯이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험을 즐기는 잭JACK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모습들을 관람객들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임주원 작가는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감정들 중 행복과 희망에 관한 서사를 인생이라는 큰 여행을 통해 작품에 풀어내고 있다. 슬픔이나 아픔 그리고 술한 고비들이 공존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추상적이지만 행복이라는 감정을 그의 작품에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이라도 간절함과 용기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고자 한다. 문의 051)731-0780



김서연 개인초대전: 인도자

~2. 28.(수)
케이בי아트

플루이드 기법으로 코끼리를 형상화한 김서연의 작품전이 케이בי아트에서 열리고 있다. 물과 기름의 성질을 활용해 액체 물감을 붓고 쓸어내리는 플루이드 기법은 우연적인 효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도전적이면서 자유로운 방식이다. 작가는 모계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 코끼리에게 매력을 느꼈다. 코끼리 무리의 수장은 암컷으로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코끼리와 나누며 숲의 길을 터주는 따뜻한 리더로 봤다. 그 모습에 어려운 길을 당당히 헤쳐가는 인간 사회의 강인한 여성상을 봤고 작가는 리더 코끼리를 닮고 싶어하는 본인을 투영하게 됐다. 오아시스를 찾아 나미브 사막을 걷는 코끼리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우직하고 당당하게 작가의 길을 걷는 작가의 열정이 담겼다. 문의 0507-1340-6247



길 위의 시간

~ 2. 29.(목)
갤러리조이

여행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모험이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엮는 독특한 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전영근, 그는 여행의 설렘을 동화 속 이야기처럼 화폭에 담아낸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던져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 떠나는 듯한 그림 속 자동차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그만의 삶의 철학을 대변하는 듯하다. 또한, 거친 듯 일관성 있게 정돈된 고유한 붓 터치와 동양화의 산점투시(散點透視)를 적용한 자유로운 화면은 여행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시각적으로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행복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림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더욱 풍요로운 자아를 만드는 시간을 이번 전시를 통해 가지길 바란다.

문의 051)746-5030



연극 <돌아온다>

3. 1.(금) ~ 2.(토)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36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 <돌아온다>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을 찾는다.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 벽에 손글씨로 쓴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가 부적인듯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그 식당에 찾아온다. 육쟁이 할머니,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학생, 집 나간 필리핀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등 그리운 사람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막걸리 잔을 가득 채운다. 바쁜 생활 속에 잠시 잊고 지냈던 그리운 사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시작부터 눈물샘을 자극하는 공연으로 강성진, 김수로 등이 출연한다.

문의 051)607-6000



테레사 프레이타스 '어느 봄날'

~ 4. 21.(일)

동구 문화플랫폼

포르투갈 출신 사진작가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풍성한 색을 사용해 꿈 같은 세계를 사진 속에 담아낸다. 전시는 총 6개 섹션으로 나뉘며 1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Among the Flowers'에는 그의 가장 아이코닉한 작품인 파스텔톤 꽃 시리즈가, 'Spring Dreams'에는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꿈 시리즈가, 'At Home, In Colour'에는 포르투갈의 평화로운 감성이 담긴 작품이 전시된다. 'Spring in the City'에는 봄을 맞은 샌프란시스코-몰타-베니스 등의 풍경이, 'La Muralla Roja'에는 스페인 건축가 리카르도 보필이 설계한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아파트를 담은 작품이, 'By the Water'에는 투명한 물빛과 꽃이 만난 작품이 전시되며 테레사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도 흥미롭다.

문의 051)465-4070



예술문화에의 불멘소리와 헛소리 최상윤 / 세종출판사

최상윤은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로 '칠판을 마주하고 30년'을 보냈고 부산문인협회장, 부산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부산문화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문화의달'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이 책에는 '문화불모지 부산'을 극복하기 위해 월간 『예술부산』을 중심으로 각종 예술문화 매체지에 발표한 저자의 신념이나 단상이 갈무리되었다. 저자는 부산예총 회장을 세 번 연임한 것에 대해 "명분과 실리가 상충될 때 실익보다 명분을 선택했던 필자의 인생관의 객관적 평가라 간주되어 더욱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소회를 적었다. '자유는 투쟁과 피를 먹고 자라는 동물이지만 예술은 투자와 사랑과 연륜을 먹고 자라는 식물'이라는 소신과 '예술이 부산을 바꾸며 부산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눈비움이 아닌 부산예총과 지역 사회 예술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했던 저자의 깊은 해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직으로 흘러내리는 마그리트 윤효점 / 현대시학사

어떤 시인은 '세계가 넓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기에 시를 읽는다고 했다. 시집 전체를 빠르게 훑다가 시선을 붙드는 게 있으면 계속 읽으며 화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단어 하나하나도 정성 들여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정성을 들인다고 했다. 2018년 『시문학』으로 등단하고 『붉은 윤곽』 『살아남은 슬픔을 보았다』 『영양실조 걸린 비너스는 화려하다』 등의 시집을 펴낸 시인은 '슬퍼서 시를 쓰다'라고 서문에 썼다. '기억을 사냥하는 익명의 숙주들/한생의 까마득한 경전을 읊조리며/영혼이 부정당하는 안과 밖의 경계선'(『투명인간, 중』)에서, '타는 듯 잊혀진 얼굴/아련한 계집아이 눈물/충혈된 꽃눈(『동백꽃, 중』)처럼 솟아나는 것에서, '발자국 사라져간/과거와 또 다른 생//열릴 듯 닫힌 문/언제나 비껴겨려//누군가 안부를 묻고/토닥여줄 그리움(『외버우스 띠, 중』)에서 시인의 쓸쓸함을 유추해본다. 그럼에도 황정산 시인은 "독자들에게 낯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깊은 사색의 골짜기로 이끄는 아주 좋은 시집"이라고 말했다.



행간에서의 노숙 문영길 / 청옥

'꼬리를 흔들다가/문득, 왜 꼬리를 흔드는지를 모르겠는 거야/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이젠 버려질까 봐/혹은 습관처럼(『길들여지다, 중』). 타성에 젖었다는 말이 있다. 변화나 새로움을 피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영길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에 실린 「길들여지다」를 읽다 문득 타성에 젖어 새해를 맞은 자신을 돌아본다. 타성에 젖었다는 것이 일상에 길들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읽혀졌다. 문제는 '하찮게 여기는 것에 게도/짓기는 커녕/무작정 꼬리부터 흔드는 거야/무조건 행복의 백기를 흔들 듯이/언짱은 기색이 보일라치면/더 격렬하게(『길들여지다, 중』)처럼 전전긍긍하며 일상에 매달리는 것이다. '너 하나/나 둘//너 하나/나 셋의 셈법(『의뭉스러운 셈법, 중』)은 아니어도 마냥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됨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바닥짐 서문희 / 세종출판사

주말 등산로에서 만난 길고양이가 눈에 밝힌 작가는 다음 등산 때 먹이를 챙겨간다. 쉽게 만 날 줄 알았던 길고양이는 동행한 남편의 휘파람 소리에도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다. 한편으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 모든 생물체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알아서 환경에 적응하고 자생할 수 있는데, 사람이 왜 그들을 동정하면서 마치 대단한 선행을 하는 것처럼 야단을 떠는가 싶'(『애착, 중』)은 생각도 든다. 수필은 '자연과 인생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일정한 형식이 없이 붓 가는 대로 쓴 글'로 정의된다. 자유로운 형식이라 하여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것이 지성력을 겸비한 작가만의 생각을 피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학중심』 『은가람문학』 편집장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작품에 대해 '나를 지탱해 줄 바닥짐'으로 삼겠다고 고백한다.



흔들리면서 바람 속을 지나고 있다 김영훈 / 도서출판 작가마을

'지금/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은/개펄에 널브러진 수많은 돌멩이 가운데/어느 하나를/고 이 품속에 안고 돌아오는 것이다/그리고 품 안의 돌이 동그랗게 진주가 될 때까지/품고 기다리는 것이다/그냥 보통의 한 여자가 그렇게/진주보다 더 귀하게 될 때까지/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누군가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한다/그때 나는 눈물이 난다'(『쇠뿔구리 사랑』) '시는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시인은 정신과 전문의다. 의대시절부터 시를 써온 시인은 1992년 동료 이인우와 함께 공동시집을 펴낸 적이 있으며, 2019년 단독시집 『낙타의 꿈』을 발간했으며, 그해 '부산가톨릭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품 안의 돌이 동그랗게 진주가 될 때까지 품고 기다리는 것', 인간의 휴머니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구가 아닐까.



상모 들녘에서 강대중 / 푸른별

남해 오지마을 산동네에서 자라 스물다섯 나이에 '야산만한 배를 타는/신기하다 못해 꿈을 꾸는 항해'(『항해기, 중』)를 경험하며 넓은 세계를 만났다.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끊어지기도 했지만 그 길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넘어지며 뒹굴며 드디어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 시집 한 권이 대수랴 싶겠지만 시인이 꿈이었던 이에게 첫 시집만큼 설레는 게 있을까. 시인의 성품은 '두둑한 식감이 나도록/통통한 조선 콩 맛이 나도록/얇은 칼질/선을 긋는다//직선을 긋는다, 가로세로/정직한 선을 긋는다/내가 사는 길처럼/칼질'(『두부, 중』)처럼 반듯하지만 때로 시란 삶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여기에 지역의 원로 김광자 시인은 '문학이란 이론보다 대장간에서 불덩이 쇠를 망치로 두들기고 다듬어 낸 칼에서 날까지 세우는 작업이 제 일이다'라며 조언한다.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장	122.57㎡
4층 전시장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2024년

1분기(1~3월)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

모집일정 및 수강기간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신청가능

수강기간 2024년 1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수강신청 및 문의

전화 및 방문접수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4206-9140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0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4:00-15: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가곡교실	20명	수) 12:00-13:5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10	수채화교실	1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1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5: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2	스마트폰 사진교실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